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국세수입 전망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2026~2030

NABO Tax Revenue Outlook for 202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총괄 | 한 석 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이 진 우 조세분석심의관
백 경 업 세제분석2과장
박 연 서 세제분석1과장

전망·작성 | 총괄 박 정 환
소득세 강 민 지, 이 정 훈
법인세 박 지 원, 이 유 섭
부가가치세 김 효 경
기타 세목 김 효 경, 이 정 훈, 김 주 현, 박 정 환, 신 미 정 추계세제분석관

경제전망 | 최 영 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김 원 혁, 이 두 영, 천 경 록, 백 기 홍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엄 상 미 행정실무관
허 성 혁 자료분석연구원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은 국회의 2027년 예산안 심사 및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 02) 6788-4834 | tpa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 2026~2030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2.)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등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급과 배당지급액 증가가 내수회복과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세에 따라 2026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06.6조원(28.5%) 증가한 480.5조원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입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주식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2027년에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기업 실적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민간투자 증가, 내수회복 등이 예상됨에 따라,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2026년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도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반도체 업황 변화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및 2027년을 포함한 2026~2030년간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전망과 비교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세수입 전망에 대한 분석이 202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및 관련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차 례

요 약 / 1

I. 2026년 국세수입 전망 / 1

1.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1
가. 거시경제 여건	1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5
2. 2026년 국세수입 전망	7
가. 총괄	7
나. 세목별 전망	10

II. 2027년 국세수입 전망 / 39

1. 2027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39
2. 2027년 국세수입 전망	44
가. 총괄	44
나. 세목별 전망	46
3.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66

III. 2026~2030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 71

1. 2026~2030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71
2.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74
가. 세목별 전망 방법	74
나.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76
3. 2026~2030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78

[BOX 1] 정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37
-------------------------------------	----

[BOX 2] 2027년 이후 추가세수 추이	80
--------------------------------	----

〈표 차례〉

[표 1] 2026년 거시경제 전망	4
[표 2] 2026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 기준	5
[표 3] 2026년 8월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6
[표 4]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9
[표 5] 2026년 NABO 소득세 전망	10
[표 6] 업태별 소매판매액 지수	12
[표 7]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13
[표 8] 2026년 양도소득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13
[표 9] 외화증권(주식) 예약결제 매도금액 추이	15
[표 10] 2026년 근로소득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15
[표 11]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16
[표 12] 취업자수 증감 추이	18
[표 13]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배당 현황	19
[표 14] 2026년 NABO 법인세 전망	20
[표 15] 2026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21
[표 16]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22
[표 17]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요 업종별 세전순이익 추이	22
[표 18] 2026년 법인세 원천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23
[표 19] 2026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24
[표 20] 2026년 부가가치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25
[표 21] 2026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27
[표 22]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추이	29
[표 23] 유종별 국내 수요 실적 추이	30
[표 24] 2026년 주요 품목별 수입액 및 증감률	31
[표 25] 2026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32
[표 26] 2026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33
[표 27] 2026년 증여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33
[표 28]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39
[표 29]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43

[표 30]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45
[표 31]	2027년 NABO 소득세 전망	46
[표 32]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47
[표 33]	2027년 NABO 법인세 전망	52
[표 34]	최근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53
[표 35]	2026년 8월 누적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54
[표 36]	2027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56
[표 37]	2027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58
[표 38]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실적 및 전망	60
[표 39]	2027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61
[표 40]	연도별 상속세 연부연납 금액 추정치	62
[표 41]	2027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67
[표 42]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69
[표 43]	중기 NABO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73
[표 44]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75
[표 45]	2026~203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77
[표 46]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79

〈그림 차례〉

[그림 1]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11
[그림 2]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액 추이	11
[그림 3] 조정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12
[그림 4] 자영업자 가구의 전체 사업소득 증감률 추이	13
[그림 5] 2026년 월별 주택(전국) 매매거래량 추이	14
[그림 6]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17
[그림 7]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21
[그림 8]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	21
[그림 9] 비금융법인 금융자산	23
[그림 10] 예금은행 수신금리	23
[그림 11] 소비 지표 증감률 추이	25
[그림 12] 통관수출입 및 환율 추이	26
[그림 13]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추이	28
[그림 14] 담배판매량 추이	28
[그림 15]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30
[그림 16] 2026년 부동산 매매가격 및 증여거래 추이	34
[그림 17]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지수 및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35
[그림 18]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 및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35
[그림 19]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36
[그림 20]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전망	47
[그림 21] 아파트(서울) 거래 추이	48
[그림 22] 아파트(서울) 가격-거래 괴리지수	48
[그림 23] 코스피 거래대금 및 지수 추이: 2025~2026.8.	49
[그림 24]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추이	50
[그림 25]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주요기업 영업이익	50
[그림 26]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54
[그림 27] 순상품교역지수 추이	54
[그림 28] 반도체 가격(DDR4 8GB) 추이	54
[그림 29] 2026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	55

[그림 30]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실적 및 전망	55
[그림 31]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실적 및 전망	57
[그림 32] 2026년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57
[그림 33]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 추이	59
[그림 34]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실적 및 전망	59
[그림 35]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감률 실적 및 전망	61
[그림 36] 부동산 증여건수 추이	63
[그림 37] 2026년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64
[그림 38] 2026년 월별 증시 주변자금 추이	64
[그림 39]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지수 추이	64
[그림 40]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	65

〈2026~2030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¹⁾ (‘26~’30년)
실질GDP 성장률	3.5	2.7	2.5	2.5	2.4	2.5
명목GDP 성장률	22.0	7.3	5.0	4.8	4.6	5.4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7.8	4.4	2.5	2.3	2.2	2.8
통관수출 증가율	54.0	10.0	5.0	4.7	4.3	6.0
통관수입 증가율	22.0	9.0	6.0	5.0	4.4	6.1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4	2.2	2.0	2.0	2.2
취업자수 증가(만명)	13.4	18.0	10.1	8.4	5.4	11.1 ²⁾
명목임금 상승률	3.2	6.5	4.7	3.3	3.2	4.4
국고채금리(3년)	3.6	3.5	3.2	2.9	2.8	3.2 ²⁾
회사채금리(3년, AA-)	4.3	4.0	3.7	3.3	3.2	3.8 ²⁾

주: 1)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2) '26~'30년의 연평균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국세수입 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²⁾ (‘26~’30년)
NABO 국세	480.5	593.7	621.9	647.7	673.3	8.8
소득세	152.1	181.7	188.9	195.9	203.0	7.5
법인세	138.3	222.1	232.3	242.8	253.4	16.3
부가가치세	88.2	93.3	97.9	102.4	107.0	4.9
기타 ¹⁾	101.9	96.7	102.8	106.6	109.9	1.9
- 기타 소비세수	38.1	39.9	41.9	42.5	43.0	3.1
- 기타 자산세수	63.8	56.7	60.9	64.1	66.9	1.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요 약

I. 2026년 국세수입 전망

2026년 국세수입은 480.5조원으로, 2025년(373.9조원) 대비 106.6조원(28.5%) 증가,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5.1조원(15.7%) 높을 전망

- 2026년 국세수입은 480.5조원으로,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호조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106.6조원(28.5%) 증가할 전망
 - 글로벌 AI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 증가(전년 대비 53.7조원)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등으로 소득세(21.6조원)와 부가가치세(9.1조원)도 전년 대비 증가 예상
 - 기타 세목 중 주식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8.8조원)와 농어촌특별세(11.5조원)도 큰 폭의 증가 예상
 - 한편, NABO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의 제1회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5.1조원(15.7%) 높은 수준
- 소득세는 152.1조원으로, 임금상승 및 배당소득 증가, 주택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21.6조원(16.6%)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78.1조원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2025년 대비 9.7조원(14.1%) 증가할 전망
 -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5.1~7.) 2.4→('26.1~7.) 8.9
 -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5년) 3.1 ('26년^o) 3.2
 - 양도소득세는 26.9조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26.5.9.) 종료 전 매도 거래량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7.0조원(35.1%) 증가할 전망
 - 주택 매매거래량(전국, 종합주택): ('25.1~8.) 46.9만호→('26.1~8.) 50.8만호(+8.3%)

- 해외주식 매도금액(결제 기준, 십억달러): ('24년) 260.4 → ('25년) 314.6 (+20.8%)
- 배당소득세는 7.1조원으로,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특별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2.6조원(56.3%)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배당 실적(지급년도 기준, 조원): ('25년) 30.3 ('26년) 35.1(+15.5%)
 - ※ '26년 3분기 삼성전자 30조원 특별배당 지급계획 발표('26.8.)
- 종합소득세는 23.3조원으로, 민간소비 개선 등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5년 대비 2.0조원(9.3%) 증가할 전망
 - 2025년 분기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5.1Q) 2.9 (2Q) △0.3 (3Q) 2.1 (4Q) 2.2
- 법인세는 138.3조원으로,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와 2026년 상반기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중간예납 확대 등으로 2025년 대비 53.7조원(63.5%)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111.6조원으로, 2025년 법인영업실적 개선과 반도체 수출기업의 2026년 상반기 실적 증가로 중간예납이 크게 늘면서 2025년 대비 50.7조원(83.2%)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5년) 28.2 ('26.上) 355.6
 - 원화기준 통관수출 증감률(전년 대비, %): ('24년) 12.9 ('25년) 8.1 ('26.上) 54.8
 - 법인세 원천분은 26.7조원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법인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배당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3.0조원(12.8%) 증가할 전망
 - 일반법인(금융업 제외) 금융자산(조원): ('25년) 4,836 ('26.Q2) 6,038
 -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 ('25.Q4) 2.76 ('26.Q1) 2.81 (Q2) 2.98
- 부가가치세는 88.2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통관수입 확대 등으로 2025년 대비 9.1조원(11.5%)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는 경기 및 소득 개선 등으로 재화·서비스의 소비가 확대
 -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上) 2.5 ('25.下) 4.1 ('26.上) 5.2
 -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4Q) 3.2 ('26.1Q) 5.0 (2Q) 6.0

-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4Q) 3.8 ('26.1Q) 6.0 (2Q) 8.4
-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도 부가가치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원화기준 통관수입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下) 4.5 ('26.上) 21.5

□ 기타 소비세수¹⁾는 38.1조원으로,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증가 등 세수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류 소비량 감소 및 유류세 인하 확대 등 세수 감소 요인이 이를 상쇄함에 따라 202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5조원으로, 경유 소비량 감소 및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 따라 2025년 대비 0.8조원(△5.9%) 감소할 전망
 - 휘발유·경유 소비량(전년동기 대비, %): ('26.1~8.) 휘발유 0.3, 경유 △8.2
 - 탄력세율(원/ℓ): ('25.11.~'26.3.26.) 휘발유 492, 경유 337.5
('26.3.27.~) 휘발유 450, 경유 281
- 관세는 8.1조원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7.6조원) 대비 0.5조원(6.6%) 증가할 전망
 - 원화기준 통관수입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下) 4.5 ('26.上) 21.5
 - 다만, 통관 수입 증가를 견인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기본 관세율이 낮아 관세 증가율이 통관수입 증가율을 하회할 전망
- 개별소비세는 9.0조원으로,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과세대상 품목 소비 증가, 탄력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0.5조원(6.1%) 증가할 전망
 -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5.上) 2.5 ('25.下) 4.1 ('26.上) 5.2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원/kg): ('25.下) 39.1 ('26.) 46
 -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26.上) 3.5 ('26.下) 5.0

□ 기타 자산세수²⁾는 63.8조원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2025년 대비 22.4조원(54.2%) 증가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19.0조원)와 종합부동산세(5.1조원) 등은 부동산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각각 2.5조원(15.2%), 0.4조원(8.9%) 증가할 전망
 - '26년 부동산 공시가격 증감률³⁾ 추이(%): 토지 2.9, 주택 7.8

1)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2)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 증권거래세는 12.2조원으로, 거래대금의 증가와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0.05%p)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8.8조원(254.6%) 증가할 전망
 - 거래대금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6.1~8월) 유가증권 305.6, 코스닥 98.1
 - 증권거래세율(%): 유가증권 0 → 0.05, 코스닥 0.15 → 0.20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73.9	415.4	480.5	106.6	28.5	65.1	15.7
일반회계	361.5	398.7	456.8	95.3	26.4	58.2	14.6
내국세	330.2	368.1	425.7	95.4	28.9	57.6	15.6
1. 소득세	130.5	136.8	152.1	21.6	16.6	15.3	11.2
2. 법인세	84.6	101.3	138.3	53.7	63.5	37.0	36.5
3.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9.0	2.5	15.2	2.0	11.6
4. 부가가치세	79.2	86.6	88.2	9.1	11.5	1.6	1.9
5. 개별소비세	8.5	8.9	9.0	0.5	6.1	0.1	1.5
6. 증권거래세	3.4	10.6	12.2	8.8	254.6	1.6	15.6
7. 인지세	0.8	0.8	0.8	△0.0	△0.2	△0.0	△1.4
8. 과년도수입	6.8	6.1	6.1	△0.7	△10.9	△0.1	△1.0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0	12.5	△0.8	△5.9	△0.6	△4.5
관세	7.6	7.2	8.1	0.5	6.6	0.9	12.8
교육세	5.7	5.6	5.4	△0.3	△4.9	△0.2	△3.7
종합부동산세	4.7	4.6	5.1	0.4	8.9	0.4	9.6
특별회계	12.4	16.8	23.7	11.3	90.8	6.9	41.4
주세	3.2	3.1	3.0	△0.2	△5.8	△0.1	△3.8
농어촌특별세	9.2	13.6	20.7	11.5	124.4	7.1	51.8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3) 공시가격 증감률은 주택의 경우 지역별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증감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을, 토지의 경우 지역별 표준지, 개별토지 공시가격 증감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필지수)을 의미한다.

II. 2027년 국세수입 전망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2026년 전망(480.5조원) 대비 113.2조원(23.5%) 증가, 정부 예산안⁴⁾(584.4조원) 대비 9.3조원(1.6%) 높을 전망

1. 2027년 국세수입 전망

-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법인 영업실적 증가,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등에 기인하여 2026년 전망⁵⁾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전망
 - 반도체 업종 실적 호조의 지속 등으로 법인세가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등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소득세는 181.7조원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근로 소득세 증가를 중심으로 2026년 대비 29.6조원(19.4%)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104.4조원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및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특별급여 지급 등으로 2026년 대비 26.3조원(33.7%) 증가할 전망
 - 임금근로자 증감(전년 대비, 만명): ('25년) 27.5 ('26년^e) 14.5 ('27년^e) 17.7
 - 명목임금 상승률(%): ('25년) 3.1 ('26년^e) 3.2 ('27년^e) 6.5
 - 종합소득세는 25.0조원으로,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로 2026년 대비 1.8조원(7.7%) 증가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명목/실질, %): ('25년) 3.3/ 1.5 ('26년^e) 5.0/ 2.3
 - 양도소득세는 23.9조원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대비 3.0조원(△11.2%) 감소할 전망
 -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조원): ('26.5월) 6.9 (6월) 7.6 (7월) 5.5 (8월) 3.4
 -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전월대비, %): ('26.7월) △23.3 (8월) △36.3 (9월) △17.4

4) 이하 '예산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2027년 예산안'을 의미한다.

5) '2026년 전망'은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2026년'으로 지칭한다.

- 법인세는 222.1조원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 등에 따른 법인 영업 이익의 높은 증가 전망에 따라 2026년 대비 83.8조원(60.6%) 증가할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194.5조원으로, 2026년 상반기 유가증권 상장사의 세전순이익 증가세가 2027년에도 지속되며 2026년 대비 82.9조원(74.3%)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순이익 증감률(전년 대비, %): ('25년) 28.2 ('26.上) 355.6
 - 2026년 상장사 영업이익 증권사 컨센서스 증감률(전년 대비, %): 222.8
 - 법인세 원천분은 27.6조원으로,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대비 0.9조원(3.3%) 증가할 전망
 - 일반법인(금융업 제외) 금융자산(조원): ('25년) 4,836 ('26.Q2) 6,038
- 부가가치세는 93.3조원으로, 민간소비 개선 등에 따라 2026년 대비 5.0조원 (5.7%) 증가할 전망
 - 기업실적 개선과 소득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 흐름은 유지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2026년 대비 증가세 둔화 예상
 -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전년 대비, %): ('26년^e) 5.0 ('27년^e) 4.2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 %): ('26년^e) 2.7 ('27년^e) 2.4
- 기타 소비세수는 39.9조원으로, 과세 대상 품목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통관수입 증가 및 금융보험업자 세율인상⁶⁾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대비 1.8조원(4.8%) 증가할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3조원으로, 경유 소비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대비 0.2조원(△1.6%) 감소할 전망
 - 개별소비세는 8.8조원으로, 발전용 유연탄 소비 감소 전망에 따라 2026년 대비 0.3조원(△2.8%) 감소할 전망
 - 관세는 8.2조원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에 따라 2026년 대비 0.1조원 (1.3%) 증가할 전망
 -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감률(전년 대비, %): ('26년^e) 22.5 ('27년^e) 1.3
 - 교육세는 7.6조원으로, 금융보험업자 세율 인상에 따른 제도변화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26년 대비 2.2조원(39.8%) 증가할 전망

6) 금융보험업자 교육세율(%): ('25년 귀속) 0.5% → ('26년 귀속)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 금융보험업자 세율: ('25년 귀속) 0.5% → ('26년 귀속)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 기타 자산세수는 56.7조원으로, 2026년 급등한 증권거래대금 하향 조정, 2021년 사망한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연부연납 완료 등으로 2026년 대비 7.0조원(△11.0%) 감소할 전망

- 증권거래세(10.7조원) 및 농어촌특별세(16.4조원)는 대내외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대금 규모가 축소 안정화되며 2026년 대비 각각 1.5조원, 4.3조원 감소할 전망
- 상속세 및 증여세(15.6조원)는 2021년 사망한 고액자산가의 연부연납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26년 대비 3.3조원(△17.6%) 감소할 전망
- 종합부동산세(6.4조원)는 주택분 세율인상 등 제도변화 효과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2026년 대비 1.3조원(25.5%) 증가할 전망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480.5	584.4	593.7	113.2	23.5	9.3	1.6
일반회계	456.8	564.3	573.1	116.3	25.5	8.9	1.6
내국세	425.7	529.3	538.7	113.0	26.5	9.4	1.8
1. 소득세	152.1	180.0	181.7	29.6	19.4	1.7	0.9
2. 법인세	138.3	216.7	222.1	83.8	60.6	5.4	2.5
3. 상속세 및 증여세	19.0	15.6	15.6	△3.3	△17.6	△0.0	△0.0
4. 부가가치세	88.2	91.4	93.3	5.0	5.7	1.9	2.1
5. 개별소비세 ¹⁾	9.0	7.5	7.7	△1.4	△15.1	0.2	2.5
6. 증권거래세	12.2	10.7	10.7	△1.5	△12.2	0.1	0.6
7. 인지세	0.8	0.8	0.9	0.1	18.4	0.1	13.5
8. 과년도수입	6.1	6.6	6.7	0.7	11.2	0.1	1.4
교통·에너지·환경세	12.5	12.6	12.3	△0.2	△1.6	△0.3	△2.4
관세 ¹⁾	8.1	8.7	8.2	0.1	1.2	△0.5	△5.3
교육세	5.4	7.5	7.6	2.2	39.8	0.2	2.0
종합부동산세	5.1	6.2	6.4	1.3	25.5	0.1	2.1
특별회계	23.7	20.1	20.5	△3.2	△13.4	0.4	2.1
주세	3.0	3.0	3.0	0.0	0.1	0.1	2.0
농어촌특별세	20.7	16.1	16.4	△4.3	△20.8	0.3	2.0
기타 ¹⁾	-	1.1	1.1	1.1	-	0.0	4.3

주: 1) 2027년 예산안부터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담배분)가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특별회계의 기타로 표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련 세목 조정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593.7조원으로, 정부 예산안(584.4조원)을 9.3조원(1.6%) 상회할 전망

- 이러한 차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 차이에 주로 기인
 -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7.3%)는 정부(4.6%)보다 2.7%p 높을 것으로 전망
 - 또한 설비투자 증가율, 임금상승률, 통관수출입 증가율 등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지표를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5 실적	2026 전망		2027 전망	
		정부 (‘26.8.)	NABO (‘26.9.)	정부 (‘26.8.)	NABO (‘26.9.)
명목GDP 성장률	4.4	12.3	22.0	4.6	7.3
실질GDP 성장률	1.1	3.0	3.5	2.2	2.7
민간소비	1.5	2.0	2.3	2.1	2.0
설비투자	1.5	5.0	6.9	3.3	6.4
자산재생산물투자	3.0	3.2	4.2	3.0	4.1
경상수지	1,231	2,900	4,300	2,450	4,400
통관수출 증가율	3.8	40.0	54.0	1.0	10.0
통관수입 증가율	0.0	20.0	22.0	3.0	9.0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6	2.7	2.2	2.4
취업자수 증감	19.3	15.0	13.4	17.0	18.0
명목임금 상승률	3.1	3.2	3.2	3.3	6.5

주: GDP 구성요소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 전망간 차이가 큰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으로 차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5.4조원, '이하 예산안 대비')의 경우 대내외 수요 증가, 경제성장 등 법인영업실적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지표를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소득세(+1.7조원)의 경우 임금 근로자수 및 명목임금 상승률 등 고용지표 전망 차이로 근로소득세(+1.9조원)를 높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
 - 부가가치세(+1.9조원)의 경우 명목 민간소비 개선세와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7 예산안 (A)	증감률 (2026 재추계 ¹⁾ 대비)	2027 전망 (B)	증감률 (2026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584.4	22.1	593.7	23.5	9.3	1.6
일반회계	564.3	23.9	573.1	25.5	8.9	1.6
내국세	529.3	24.7	538.7	26.5	9.4	1.8
1. 소득세	180.0	18.1	181.7	19.4	1.7	0.9
2. 법인세	216.7	58.9	222.1	60.6	5.4	2.5
3. 상속세 및 증여세	15.6	△15.4	15.6	△17.6	△0.0	△0.0
4. 부가가치세	91.4	2.6	93.3	5.7	1.9	2.1
5. 개별소비세 ²⁾	7.5	△16.9	7.7	△15.1	0.2	2.5
6. 증권거래세	10.7	△14.3	10.7	△12.2	0.1	0.6
7. 인지세	0.8	5.2	0.9	18.4	0.1	13.5
8. 과년도수입	6.6	14.5	6.7	11.2	0.1	1.4
교통·에너지·환경세	12.6	1.4	12.3	△1.6	△0.3	△2.4
관세 ²⁾	8.7	7.8	8.2	1.2	△0.5	△5.3
교육세	7.5	37.3	7.6	39.8	0.2	2.0
종합부동산세	6.2	23.4	6.4	25.5	0.1	2.1
특별회계	20.1	△13.8	20.5	△13.4	0.4	2.1
주세	3.0	△1.1	3.0	0.1	0.1	2.0
농어촌특별세	16.1	△20.9	16.4	△20.8	0.3	2.0
기타 ²⁾	1.1	-	1.1	-	0.0	4.3

주: 1) 2026년 9월 정부 재추계 대비

2) 2027년 예산안부터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담배분)가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특별회계의 기타로 표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련 세목 조정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III. 2026~2030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전망

1.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전망
 - 2027년 이후 국세수입은 주요 세목인 법인세(전망기간 중 연평균 16.3% 증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세(7.5%), 부가가치세(4.9%) 등 기간세목도 견조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소득세는 2026년 152.1조원에서 2030년 203.0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전망
 - 근로소득세는 2027년 성과급 요인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 2027~2030년 연평균 3.3% 증가할 전망('26~'30년 연평균 10.2%)
 - 명목임금 상승 및 임금근로자 수 증가 등 고용지표의 지속 개선을 전제
 - 종합소득세는 민간소비 개선 및 명목GDP 성장 등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로 연평균 6.0% 증가 예상
 - 명목GDP 성장률 전망('26~'30년 연평균, %): 5.4
 - 양도소득세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27년 감소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 수요의 완만한 증가를 전제로 2027~2030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는 2026년 138.3조원에서 2030년 253.4조원으로 연평균 16.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법인세 신고분은 2026년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영업실적 개선에 따라 2027년 74.3% 증가한 후, 경제성장세 둔화 전망에 따라 2028년 이후 연 4%대의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법인세 신고분 증감률 추이(%): ('27년) 74.3, ('28~'30년 평균) 4.7

- 법인세 원천분은 2027년 이후 금리 안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와 배당 확대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회사채금리 추이(3년물, AA-, %): ('26년) 4.3 ('27년) 4.0 ('28~'30년 평균) 3.4

□ 부가가치세는 2026년 88.2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전망

- 내수회복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로 견조한 증가세 예상
 -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26~'30년 연평균, %): 3.9

□ 기타 세목은 2026년 101.9조원에서 2030년 109.9조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전망

- 기타 소비세수는 민간소비 증가 및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의 영향으로 2026년 38.1조원에서 2030년 43.0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전망
- 기타 자산세수는 2026년 63.8조원에서 2027년 상속세 연부연납분 감소, 증권거래대금 감소 전망 등으로 56.7조원으로 감소한 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2030년 66.9조원으로 연평균 1.2% 증가할 전망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²⁾ ('26~'30년)
NABO 국세	480.5	593.7	621.9	647.7	673.3	8.8
소득세	152.1	181.7	188.9	195.9	203.0	7.5
법인세	138.3	222.1	232.3	242.8	253.4	16.3
부가가치세	88.2	93.3	97.9	102.4	107.0	4.9
기타 ¹⁾	101.9	96.7	102.8	106.6	109.9	1.9
- 기타 소비세수	38.1	39.9	41.9	42.5	43.0	3.1
- 기타 자산세수	63.8	56.7	60.9	64.1	66.9	1.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6~2030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을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2026년 478.6조원(재추계 기준)에서 2030년 644.8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정부 계획 대비 5년 합계 77.1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차이는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6년 및 2027년의 세수 차이와 양 기관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차이 등에 주로 기인
 - (전망의 베이스 차이)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외수요 증가 및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2026년 및 2027년 기업 영업실적 개선세 및 내수회복세를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28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이 정부의 명목GDP 성장률 전망을 연도별로 0.6~1.0%p 상회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와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26~'30년 (증감률)/[합계]
NABO	국세수입	480.5 (28.5)	593.7 (23.5)	621.9 (4.8)	647.7 (4.2)	673.3 (4.0)	(8.8)
	명목GDP 성장률	22.0	7.3	5.0	4.8	4.6	(5.4)
정부	국세수입 ¹⁾	478.6 (28.0)	584.4 (22.1)	606.7 (3.8)	625.5 (3.1)	644.8 (3.1)	(7.7)
	명목GDP 성장률	12.3	4.6	4.0	4.0	4.0	(4.1)
NABO - 정부		1.9	9.3	15.2	22.2	28.5	[77.1]

주: 1) 정부의 2026년 전망치는 9월 재추계 기준

1. ()는 전년 대비 증감률 및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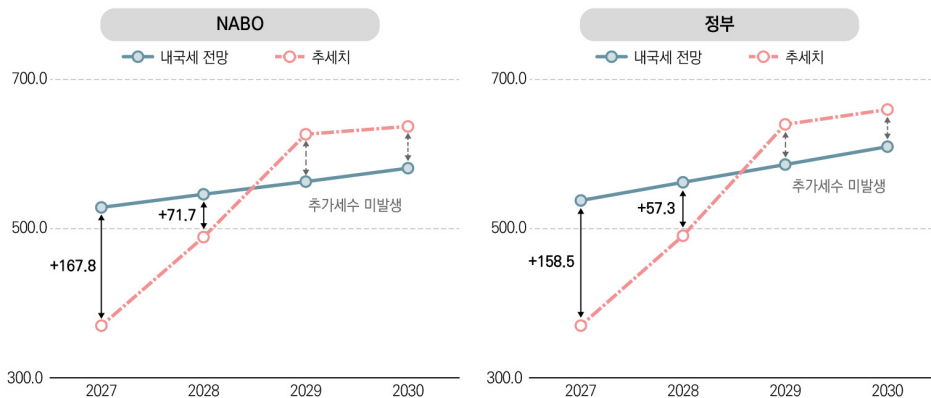
2. []는 '26~'30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국세수입 전망차이의 총합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를 추정한 결과, 2027~2028년에만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입이 추세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란 내국세 세입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입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의미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추가세수를 추정한 결과, 2027년 167.8조원, 2028년 71.7조원으로 추정
 - 2029년부터는 내국세의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내국세입 전망이 추세치를 하회하여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
 - 한편, 정부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는 2027년 추가세수 규모(158.5조원) 외에 2028년 이후 추가세수 추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추가세수를 추정한 결과, 2027~2028년에만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 전망에 따른 추가세수 추이]

(단위: 조원)



주: 1. NABO의 추가세수 추이는 내국세 실적 및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
 2. 정부의 추가세수 추이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바탕으로 NABO가 추정한 수치

자료: 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I. 2026년 국세수입 전망

1.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10월 현재 시점의 거시경제 여건과 2026년 8월까지의 국세수입 수납 실적을 바탕으로 2026년 국세수입 규모를 전망하였다. 이하에서는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 여건과 2026년 국세수입 실적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가. 거시경제 여건

경제성장률

우리 경제는 2026년 상반기 중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출부문별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이 급년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아졌다.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증가세가 가세하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26년 실질GDP는 연간 3.5% 성장할 전망이다.

명목GDP는 상반기 중 21.9%의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하반기의 5.6%에 비해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실질GDP 성장률이 3.8%로 높아진 데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으로 교역조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며 GDP디플레이터가 17.5%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교역조건 개선이 지속되며 2026년 명목GDP는 전년 대비 22.0% 성장할 전망이다.

지출부문별로 살펴보면, 실질 민간소비는 2026년 상반기 중 가계의 소득 개선에 힘입어 2.6% 증가했다. 반도체 제조업 등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이 소비의 상방 요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백기홍 경제분석관(ghbaek@assembly.go.kr, 6788-4750)

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민간소비 증가에 기여하였다. 다만 가계신용의 증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민간소비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6년 연간으로는 2.3% 증가할 전망이다.

실질 설비투자는 상반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5.4% 증가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장비 반입 단계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장비를 중심으로 기계류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정부의 R&D 분야 재정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반기 중 3.8%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가 성장동력으로 가세하면서 2026년 연간 4.2% 성장할 전망이다.

대외거래

2026년 상반기 통관수출액은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컴퓨터 등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전년동기 대비 48.2% 증가하였다.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2026년 8월까지 반도체·컴퓨터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1.1%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통관수출은 2026년 연간 54.0%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통관수입액은 중동전쟁의 영향을 받은 에너지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및 설비투자과 관련된 자본재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6.8%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수출 증가에 따라 관련 중간재 수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연간 22.0% 성장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2026년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5% 상승하였다. 국제유가는 2026년 1월 배럴당 63.7달러에서 4월 103.9달러까지 상승한 후 하락하였으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에

너지 공급 시설이 공격으로 파손되는 등 중동전쟁 상황이 재차 악화되며 국제유가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유가 상승의 영향이 이어지며 연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취업자 수는 2026년 상반기에 10.8만명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동기(18.1만명) 대비 7.4만명 축소되었는데, 이는 보건·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과학기술업 취업자 수가 이례적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며,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부문 고용 감소세도 일부 영향을 주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건설투자가 반등하고 상반기의 민간소비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취업자 수가 16.1만명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13.4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2026년 실업률은 전년과 같은 2.8%를 유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은 2026년 상반기에 2.7% 상승하였다.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월 특별급여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상승(140.7%)하였으나 건설업 등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하반기에는 민간소비 회복과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리

2026년 상반기 국고채금리(3년)는 3.4%를 기록하였다. 국고채금리는 반도체 산업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글로벌 중장기 금리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하였다. 하반기에도 금리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 등으로 상승세는 둔화됨에 따라 연평균 금리 수준은 3.6%로 전망된다. 한편, 회사채금리(3년, AA-)는 국고채금리(3년) 상승 등에 따라 2026년 상반기 4.0%를 기록하였고, 하반기에는 4.5%로 상승하여 연평균 4.3%로 전망된다.

[표 1] 2026년 거시경제 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성장률	1.1	3.8	3.3	3.5
민간소비	1.5	2.6	2.1	2.3
설비투자	1.5	5.4	8.3	6.9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8	4.6	4.2
경상수지(억달러)	1,231	1,910	2,390	4,300
통관수출	3.8	48.2	59.1	54.0
통관수입	0.0	16.8	26.9	22.0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3.2	17.5	18.2	17.8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5	2.8	2.7
취업자수 증감(만명)	19.3	10.8	16.1	13.4
실업률	2.8	3.2	2.5	2.8
명목임금 상승률	3.1	2.7	3.7	3.2
국고채금리(3년)	2.6	3.4	3.8	3.6
회사채금리(3년, AA-)	3.1	4.0	4.5	4.3
명목GDP 성장률	4.4	21.9	22.1	22.0

주: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는 실적치, 2026년 하반기 및 연간 자료는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나. 국세수입 실적 추이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금년의 세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6년 8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329.9조원으로 전년동기(260.8조원) 대비 69.1조원(26.5%) 증가하였다.

2026년 국세수입 실적은 1월부터 전년동기 대비 1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납되며 전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신고분 증가와 이들 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증가에 기인한다.

[표 2] 2026년 국세수입 월별실적 추이: 누적 기준

(단위: 조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5	46.6	61.0	93.3	142.2	172.3	190.0	232.6	260.8
2026	52.9	71.0	108.8	164.1	199.9	223.0	274.0	329.9
증감 (%)	6.2 (13.4)	10.0 (16.5)	15.5 (16.7)	21.9 (15.4)	27.5 (16.0)	33.0 (17.4)	41.4 (17.8)	69.1 (26.5)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01.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4.4조원(16.6%) 증가하였다. 소득세 세부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우선 근로소득세는 반도체 업종 등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6.5조원(14.5%) 증가하였다. 양도소득세는 주택매매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3조원(37.2%) 증가하였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증가로 2025년 대비 1.0조원(26.9%) 증가하였다.

법인세는 8월 누적 기준 91.6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8.2조원(44.5%) 증가하였다. 이 중 신고분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분 증가에 더해 2026년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이 중간예납에 반영되며 전년동기 대비 27.1조원(57.4%) 증가하였다. 원천

분도 비금융법인 금융자산 증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원 (6.7%)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는 8월까지 65.1조원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7.4조원(12.8%)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증가세는 내수회복에 의한 명목 민간소비의 증가와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통관수입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기타 세목 중에는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증권거래 활성화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8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각각 7.0조원, 9.5조원 증가하였다.

[표 3] 2026년 8월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단위: 조원, %)

구 분	당월			8월 누적				'25 실적	'26 추경예산
	'25.8	'26.8	증감액	'25.1~8	'26.1~8	증감액	증감률		
국세	28.2	55.9	27.7	260.8	329.9	69.1	26.5	373.9	415.4
○ 소득세	9.6	11.8	2.3	86.7	101.1	14.4	16.6	130.5	136.8
- 종합소득세	0.7	1.0	0.3	12.7	14.1	1.4	10.8	21.3	22.6
- 양도소득세	2.1	3.1	1.0	14.2	19.4	5.3	37.2	19.9	20.4
- 근로소득세	5.3	6.3	0.9	45.1	51.6	6.5	14.5	68.4	73.2
- 배당소득세	0.2	0.2	0.0	3.6	4.5	1.0	26.9	4.6	4.6
○ 법인세	15.9	39.7	23.8	63.4	91.6	28.2	44.5	84.6	101.3
- 신고분	14.5	38.2	23.7	47.3	74.4	27.1	57.4	60.9	76.7
- 원천분	1.4	1.5	0.1	16.1	17.2	1.1	6.7	23.7	24.6
○ 상속세 및 증여세	1.4	1.9	0.6	11.6	13.4	1.7	15.0	16.5	17.0
○ 부가가치세	△3.6	△4.3	△0.7	57.7	65.1	7.4	12.8	79.2	86.6
○ 증권거래세	0.4	1.0	0.6	2.2	9.2	7.0	318.9	3.4	10.6
○ 교통·에너지·환경세	1.2	1.1	△0.0	8.6	8.6	0.0	0.0	13.2	13.0
○ 관세	0.6	0.7	0.1	5.0	5.4	0.4	8.5	7.6	7.2
○ 농어촌특별세	0.8	1.9	1.1	5.4	15.0	9.5	175.0	9.2	13.6
○ 기타	2.0	1.9	△0.0	20.2	20.5	0.3	1.7	29.7	29.2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26년 국세수입 전망

가. 총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국세수입을 480.5조원으로, 2025년(373.9조원) 대비 106.6조원(2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증가는 반도체 기업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가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와 증권거래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가 등도 이러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은 제1회 추경예산(415.4조원, 이하 '추경예산')을 65.1조원(15.7%) 상회하는 수준이다.¹⁾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6년 소득세는 152.1조원으로, 2025년(130.5조원) 대비 21.6조원(1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세부세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세가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지급액 증가²⁾ 등에 따른 임금상승률 확대³⁾의 영향으로 2025년 대비 9.7조원(14.1%)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주택매매량 증가⁴⁾ 등에 따라 2025년 대비 7.0조원(35.1%)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의 경우,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증가 등으로 2025년 대비 2.6조원(56.3%)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법인세는 138.3조원으로, 2025년(84.6조원) 대비 53.7조원(6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신고분은 글로벌 AI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법인의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⁵⁾됨에 따라 50.7조원(83.2%)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법인세 원천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⁶⁾과 주요 기업의 배당 증가 등으로 2025년 대비 3.0조원(1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부가가치세는 88.2조원으로, 2025년(79.2조원) 대비 9.1조원(11.5%)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1) 한편,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2026.9.) 결과에 따르면, 2026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추경예산(415.4조원)을 63.2조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480.5조원) 보다 1.9조원 낮은 수준이다.

2) 상용 특별급여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5.1~7월) 2.4 ('26.1~7월) 8.9

3) 명목임금 상승률(전년 대비, %): ('24년) 2.9 ('25년) 3.1 ('26년^{e)}) 3.2

4) 주택 매매량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6.上.) 10.6 (수도권 13.4, 비수도권 7.6)

5) 유가증권 상장사 세전이익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4년) 83.6 ('25년) 28.2 ('26.上.) 355.6

6) 한국은행 기준금리(%): ('26.6월) 2.50 → (7월) 2.75 → (8월) 3.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민간소비의 증가세 확대⁷⁾에 따른 국내분 증가 전망과 함께 유가 상승 및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른 반도체 장비 등 수입 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입분도 증가⁸⁾할 것으로 전망된 점에 주로 기인한다.

2026년 기타 소비세수⁹⁾는 2025년 대비 0.2조원(△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수회복으로 인한 명목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의 증가에 따라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확대¹⁰⁾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25년 대비 0.8조원(△5.9%)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2026년 기타 자산세수¹¹⁾는 2025년 대비 22.4조원(5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높은 증가세는 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¹²⁾와 함께 증권거래세율 인상¹³⁾ 등으로 2025년 대비 각각 8.8조원, 11.5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7)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6.Q1) 4.8 (Q2) 5.6

8) 통관수입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26.Q1) 11.2 (Q2) 22.4

9) '기타 소비세수'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10) 탄력세율(원/ℓ):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 ('25.5.~10.) 휘발유 476, 경유 319 → ('25.11.~'26.3.26.) 휘발유 492, 경유 337.5 → ('26.3.27.~) 휘발유 450, 경유 281

11) '기타 자산세수'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12) '26년 1~9월 증권거래대금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코스피) 279.4, (코스닥) 15.0

13)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유가증권 ('25년) 0 → ('26년) 0.05, 코스닥 ('25년) 0.15 → ('26년) 0.2

[표 4] 202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373.9	415.4	480.5	106.6	28.5	65.1	15.7
일반회계	361.5	398.7	456.8	95.3	26.4	58.2	14.6
내국세	330.2	368.1	425.7	95.4	28.9	57.6	15.6
1. 소득세	130.5	136.8	152.1	21.6	16.6	15.3	11.2
2. 법인세	84.6	101.3	138.3	53.7	63.5	37.0	36.5
3.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9.0	2.5	15.2	2.0	11.6
4. 부가가치세	79.2	86.6	88.2	9.1	11.5	1.6	1.9
5. 개별소비세	8.5	8.9	9.0	0.5	6.1	0.1	1.5
6. 증권거래세	3.4	10.6	12.2	8.8	254.6	1.6	15.6
7. 인지세	0.8	0.8	0.8	△0.0	△0.2	△0.0	△1.4
8. 과년도수입	6.8	6.1	6.1	△0.7	△10.9	△0.1	△1.0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0	12.5	△0.8	△5.9	△0.6	△4.5
관세	7.6	7.2	8.1	0.5	6.6	0.9	12.8
교육세	5.7	5.6	5.4	△0.3	△4.9	△0.2	△3.7
종합부동산세	4.7	4.6	5.1	0.4	8.9	0.4	9.6
특별회계	12.4	16.8	23.7	11.3	90.8	6.9	41.4
주세	3.2	3.1	3.0	△0.2	△5.8	△0.1	△3.8
농어촌특별세	9.2	13.6	20.7	11.5	124.4	7.1	51.8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2026년 소득세는 152.1조원으로, 2025년(130.5조원) 대비 21.6조원(1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136.8조원을 15.3조원(11.2%)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수의 높은 증가세는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을 포함한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지급액 확대 등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기업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배당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 등에 기인한다.

[표 5] 2026년 NABO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추경예산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30.5	136.8	152.1	21.6	16.6	15.3	11.2
신고분	41.2	43.1	50.1	8.9	21.7	7.1	16.4
종합소득세	21.3	22.6	23.3	2.0	9.3	0.6	2.8
양도소득세	19.9	20.4	26.9	7.0	35.1	6.4	31.5
원천분	89.3	93.8	102.0	12.7	14.2	8.2	8.8
이자소득세	7.0	6.0	6.6	△0.4	△5.3	0.6	10.4
배당소득세	4.6	4.6	7.1	2.6	56.3	2.5	53.3
사업소득세	5.0	5.3	5.1	0.2	3.4	△0.1	△2.6
근로소득세	68.4	73.2	78.1	9.7	14.1	4.8	6.6
연금소득세	0.7	0.9	0.9	0.2	26.0	△0.0	△1.2
기타소득세	2.4	2.5	2.7	0.3	14.3	0.3	11.3
퇴직소득세	1.2	1.2	1.4	0.2	12.5	0.1	12.0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min1231@assembly.go.kr, 6788-4746) 종합소득세, 소득세 기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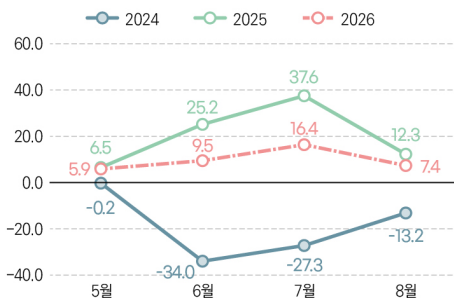
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는 23.3조원으로, 2025년(21.3조원) 대비 2.0조원(9.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22.6조원)을 0.6조원(2.8%)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종합소득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2025년 자영업자 사업소득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14.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4조원(10.8%)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민간소비 개선 등에 따른 일반 자영업자의 확정신고 실적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월별 세수실적(당월분)의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¹⁴⁾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5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5.9% 증가하였고, 수입규모가 일정규모(업종별 5억원~1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신고자'의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6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9.5% 증가하여 5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후 종합소득세 분납분이 수납되는 7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이 16.4%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8월에도 7.4%로 종합소득세수 실적의 호조세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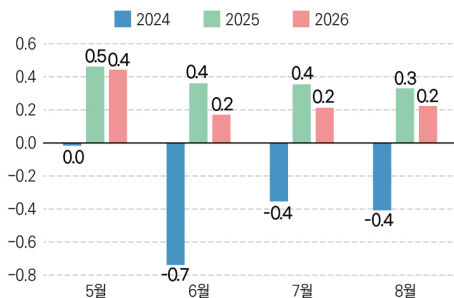
[그림 1]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그림 2] 종합소득세 당월분 세수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액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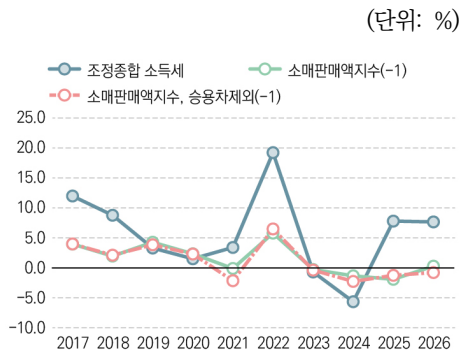
주: 월별 종합소득세수 실적치에, 종합소득세에서 지급되는 월별 EITC, CTC를 가산한 수치를 바탕으로 추정

자료: 재정경제부의 월별 세수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4) 월별 종합소득세수 실적치에, 종합소득세에서 지급되는 월별 EITC, CTC를 가산한 수치를 바탕으로 추정한 증가율

2026년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를 아래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 2026년 조정 종합소득세는 전년과 유사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매판매 추이가 조정 종합소득세 추이와 변동성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소매업체의 국내 상품판매액 증감률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2024년 $\Delta 1.9\%$ 에서 2025년 0.3% 로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할 경우, 2024년 $\Delta 1.3\%$, 2025년 $\Delta 0.8\%$ 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업태별 구분 중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은 2024년에 비해 2025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3] 조정 종합소득세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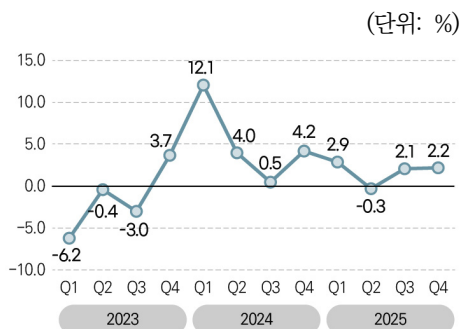
[표 6] 업태별 소매판매액 지수
(단위: 전년 대비, %)

	2023	2024	2025
소매판매액지수	$\Delta 1.3$	$\Delta 1.9$	0.3
(자동차 제외)	$(\Delta 2.3)$	$(\Delta 1.3)$	$(\Delta 0.8)$
백화점	1.8	$\Delta 2.4$	0.3
대형마트	0.5	$\Delta 2.0$	$\Delta 4.4$
면세점	$\Delta 25.4$	3.1	$\Delta 14.1$
슈퍼마켓·잡화점	1.1	$\Delta 1.9$	$\Delta 4.8$
편의점	$\Delta 5.2$	$\Delta 0.1$	$\Delta 2.6$
승용차·연료소매점	3.0	$\Delta 4.0$	5.4
전문소매점	$\Delta 1.2$	$\Delta 4.2$	0.5
무점포소매	1.2	2.6	1.4

주: 1. 조정 종합소득세는 이연세수, EITC·CTC를 가산하여 조정한 세액을 의미, 2026년 조정 종합소득세는 전망치임
2. (-1)은 전년 귀속분을 당해 연도로 한 연도씩 시차를 조정하였음을 의미
자료: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2025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을 가계 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분기별 사업소득은 2025년 2분기를 제외하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는 상반기에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소득이 높은 5분위의 경우 3분기를 제외하면, 연중 전체 평균에 비해 대체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4] 자영업자 가구의
전체 사업소득 증감률 추이



[표 7]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평균	2.9	△0.3	2.1	2.2
- 1분위	△22.2	△34.2	△1.1	3.9
- 2분위	0.6	△0.5	3.0	22.8
- 3분위	△10.2	△6.6	3.3	△5.9
- 4분위	2.1	△4.9	3.3	△2.6
- 5분위	6.8	3.8	1.4	5.2

주: 2025년 4분기 기준 각 분위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분위 5.7만원, 2분위 55.6만원, 3분위 153.3만원, 4분위 306.6만원, 5분위 694.0만원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양도소득세

2026년 양도소득세는 26.9조원으로, 2025년(19.9조원) 대비 7.0조원(3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20.4조원을 6.4조원(31.5%)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양도소득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최근 부동산·주식 시장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양도소득세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8월까지 19.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14.2조원) 대비 5.3조원(37.2%) 증가하였다. 당월 실적은 매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해외주식 양도분 확정신고와 다주택자 증과 시행 전 매도분이 집중된 5월에는 당월 세수가 4.7조원으로 전년동월(3.0조원) 대비 54.4% 증가하였다.

[표 8] 2026년 양도소득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5년	1.0	2.1	1.1	1.8	3.0	1.2	1.9	2.1	14.2
2026년	1.3	2.9	1.4	2.0	4.7	1.6	2.5	3.1	19.4
(증감률)	33.5	33.5	27.6	11.3	54.4	37.4	31.0	50.5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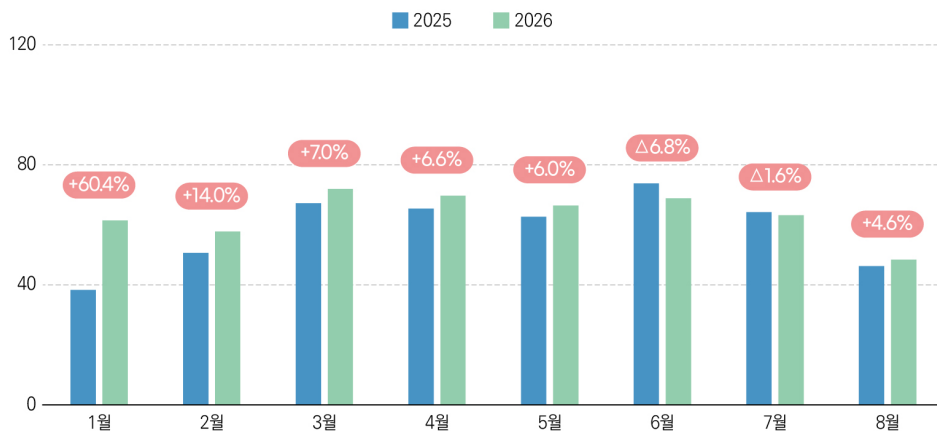
주: 증감률은 2026년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세수 증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유예 종료에 따른 질세 매물 확대, 주택가격 상승,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부동산의 경우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가격 상승세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 시행(2026.5.) 전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6년 1~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0.8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수도권(12.0%)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월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를 살펴보면, 다주택자 증과 유예가 적용되었던 5월까지 전년동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이후 다주택자 증과 유예가 종료된 직후인 6월($\Delta 6.8\%$) 및 7월($\Delta 1.6\%$)에는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8월에는 소폭 증가(4.6%)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림 5] 2026년 월별 주택(전국) 매매거래량 추이

(단위: 천호)



주: 1월의 높은 증가율(60.4%)은 2025년 1월 낮은 거래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해석됨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식분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5년 해외주식 매도금액이 전년 대비 20.8% 증가하면서 2026년 5월 확정신고분 증가로 이어졌으며, 국내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대주주 상반기 양도분이 2026년 8월 실적에 반영되었다.

[표 9] 외화증권(주식) 예약결제 매도금액 추이

(단위: 십억USD,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도금액	143.8	145.3	260.4	314.6
증가율	△23.6	1.0	79.3	20.8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2026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분의 경우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도 매매거래량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세수 증가세가 8월 누적 증가율보다 둔화될 것을 전제로 전망하였다. 한편, 주식분의 경우 분납 시점(2개월)을 감안하여 8월 누적 실적 증가세가 9월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근로소득세

2026년 근로소득세는 78.1조원으로, 2025년(68.4조원) 대비 9.7조원(1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 73.2조원을 4.8조원(6.6%)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근로소득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최근의 노동시장 상황, 하반기 성과급 지급 요인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8월 누계 51.6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6.5조원(14.5%) 증가하였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3월과 4월 당월 세수가 전년동월 대비 각각 1.9조원(145.0%), 0.8조원(16.8%)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전년동월 대비 10%를 상회하고 있다.

[표 10] 2026년 근로소득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4년	8.3	7.3	1.2	4.5	4.7	2.8	6.2	5.3	40.2
2025년	9.0	9.2	1.3	5.0	5.2	3.2	6.8	5.3	45.1
2026년	9.9	9.3	3.2	5.8	5.9	3.8	7.5	6.3	51.6
(증감률)	9.9	1.0	145.0	16.8	12.7	18.3	10.1	17.0	14.5

주: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기준, 증감률은 2026년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명목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2026년 7월 누계 명목임금 상승률은 2.7%로 전년 동기(2.9%)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지만, 상용근로자 특별급여는 8.9% 증가하여 전년 동기(2.4%)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 증가율(7월 누계 14.2%)이 전년(1.9%) 대비 크게 증가해 대기업 중심의 성과급 지급 확대가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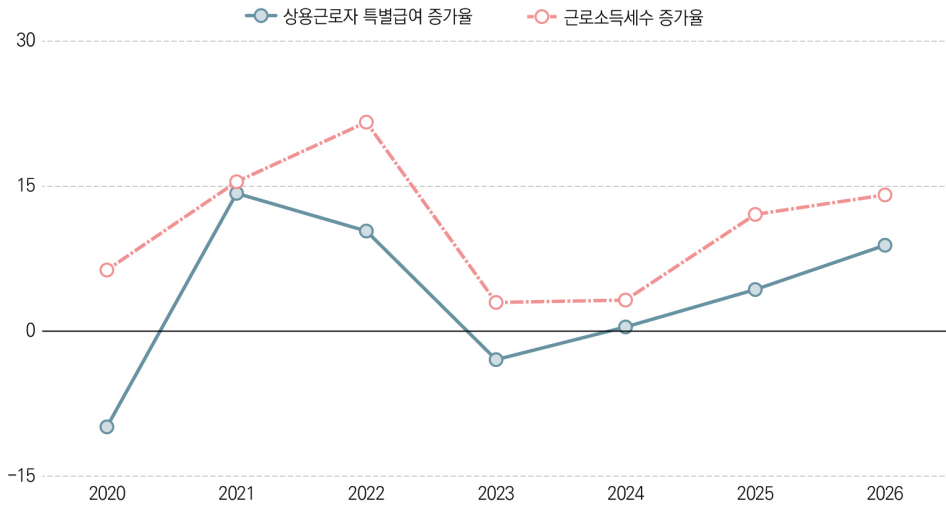
구분	2024년 1~7월	2024년 연간	2025년 1~7월	2025년 연간	2026년 1~7월
전체	3.1	2.9	2.9	3.1	2.7
상용 정액급여	3.4	3.2	2.8	2.7	2.2
상용 초과급여	7.2	5.8	5.6	5.6	6.0
상용 특별급여	0.3	0.4	2.4	4.3	8.9
(300인 이상)	△3.0	△2.0	1.9	5.7	14.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 이후 근로소득세수와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증가율을 비교하면 유사한 증가율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특별급여 증가율이 전년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연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2025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상용근로자 특별급여 및 근로소득세수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 주: 1. 근로소득세수는 근로소득세에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실적 활용
 2. 2026년 특별급여 증가율은 2026년 7월(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며, 2026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2026년 2분기 들어 고용지표의 개선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분기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3.2만명 증가에 그쳐 1분기(18.3만명)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근로소득세의 과세기반인 임금근로자는 1분기 14.6만명 증가하였으나 2분기 7.9만명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용직의 증가폭도 1분기 16.3만명에서 2분기 2.4만명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최근 월별 동향을 보면 임금근로자는 7월 1.1만명 감소에서 8월 11.3만명 증가로 전환되고, 상용직 증가폭도 7월 7.1만명에서 8월 18.0만명으로 확대되어 고용지표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한 반면, 핵심 연령층인 20~59세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12] 취업자수 증감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6.1/4	'26.2/4
전체	369	816	327	159	193	183	32
60세 이상	330	452	366	266	345	223	190
20~59세	29	357	△23	△88	△144	△161	△158
임금근로자	421	749	327	214	275	146	△79
상용직	366	805	478	183	283	163	24
임시직	152	43	△61	154	46	△49	△100
일용직	△96	△100	△90	△122	△55	32	△3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근로소득세 전망은 성과급 지급 효과가 집중된 3~4월을 제외한 기간의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일부 대기업의 하반기 특별성과급 지급, 임금인상분 확정 등 추가 지급 요인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세

2026년 배당소득세는 7.1조원으로, 2025년(4.6조원) 대비 2.6조원(5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세는 8월 누적 4.5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0조원(26.9%) 증가하였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실적 증가세에 더해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특별배당 등이 추가됨에 따라, 2026년 배당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6년 배당소득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2025년도 12월 결산 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의 결산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상장법인 799개사 중 566개사(70.8%)가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배당총액은 35.1조원으로 전년대비 4.7조원(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3분기에 발표된 반도체 주요기업의 당해연도 이익에 대한 30조원 규모 특별배당 지급계획¹⁵⁾ 등도 2026년 배당소득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삼성전자 보도자료, “삼성전자, 사상 최대 주주환원 실시... 2026년 약 90조~110조원 예상”, 2026.8.21.

[표 13]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배당 현황

			2022	2023	2024	2025
법인수	유가증권상장법인(A)	개	784	799	807	799
	배당법인(B)	개	557	558	565	566
	(B/A)	%	71.0	69.8	70.0	70.8
배당금	총액	조원	26.6	27.5	30.3	35.1
	(증감률)	%	△7.1	3.3	10.5	15.5
	1기업당 평균	억원	477	492	537	619

주: 1. 결산 현금배당(우선주 포함)

2. 2025년 결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현금배당으로, 실제 지급은 2026년도에 이루어짐

자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현금배당 법인의 배당 현황 분석, 2026.4.20.

소득세 기타

소득세 세부세목 중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세(이자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에 대한 전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자소득세는 6.6조원으로, 2025년(7.0조원) 대비 0.4조원(△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소득세는 8월 누적 4.6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3조원(△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년 이자지급액의 베이스가 되는 2025년 예금은행 수신금리의 하락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사업소득세(5.1조원), 기타소득세(2.7조원), 퇴직소득세(1.4조원), 연금소득세(0.9조원)는 8월까지의 증감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법인세

2026년 법인세는 138.3조원으로, 2025년(84.6조원) 대비 53.7조원(6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01.3조원)을 37.0조원(3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11.6조원으로, 2025년 대비 50.7조원(83.2%) 증가하며, 추경예산(76.7조원)을 34.9조원(45.5%)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원천분은 26.7조원으로 2025년 대비 3.0조원(12.8%) 증가하며, 추경예산(24.6조원)을 2.1조원(8.5%)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2026년 NABO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84.6	101.3	138.3	53.7	63.5	37.0	36.5
- 신고분	60.9	76.7	111.6	50.7	83.2	34.9	45.5
- 원천분	23.7	24.6	26.7	3.0	12.8	2.1	8.5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법인세 신고분은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2026년 상반기까지의 법인 영업 실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8월까지 법인세 신고분은 74.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27.1조원(57.4%) 증가하였다. 이는 2025년 법인 영업실적 개선으로 확정신고분이 증가¹⁶⁾한 데 더해,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실적 개선폭이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반도체 주요 기업 등의 상반기 기업 실적 증가는 금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반영됨에 따라 8월 법인세 신고분은 38.2조원으로 전년동월(14.5조원) 대비 23.7조원(163.4%) 증가하였다.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839) 법인세 신고분
이유섭 추계세제분석관(useuplee@assembly.go.kr, 6788-4838) 법인세 원천분

16)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2026년 3~5월간 수납액은 35.1조원으로 전년동기(31.7조원) 대비 3.4조원(10.7%) 증가하였다.

[표 15] 2026년 법인세 신고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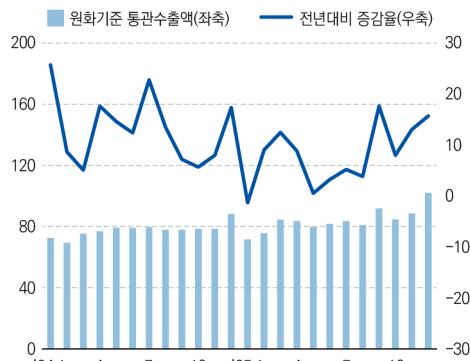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5	0.2	0.0	19.6	8.3	3.8	0.5	0.3	14.5	47.3
2026	0.0	0.1	20.7	10.3	4.1	0.8	0.1	38.2	74.4
증감 (%)	△0.2 (△88.9)	0.1 (452.5)	1.1 (5.5)	2.0 (24.0)	0.3 (8.5)	0.3 (56.1)	△0.2 (△63.2)	23.7 (163.4)	27.1 (57.4)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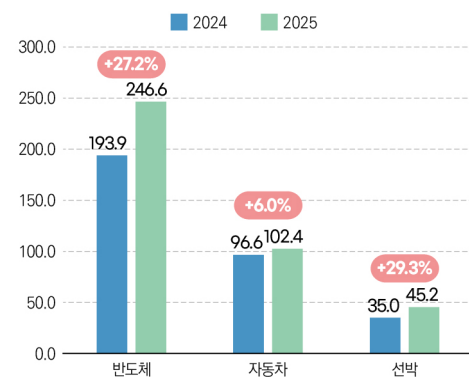
2025년 법인 영업실적은 AI 관련 제품의 수요 확대와 이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세계 상품교역량이 전년 대비 4.6%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화기준 통관수출은 2025년 1,008.7조원¹⁷⁾(7,093억 달러)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다.¹⁸⁾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원화기준 246.6조원(1,734.1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으며, 자동차와 선박 등도 수출 증가에 기여하였다.

[그림 7]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단위: 조원, %)



주: 월별 통관수출액에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8]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
(단위: 조원)



주: 월별 수출액에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입

17) 원화기준 통관수출액은 월별 통관수출액(달러기준)에 월평균 환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18) 사상 최초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하였다.

이로 인해 2025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24년 대비 25.4%, 세전순이익은 28.2%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일반서비스업과 전기·가스 업종도 실적이 개선되었다.

2026년 상반기에도 AI 관련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법인 영업실적 개선세가 확대되었다. 원화 기준 통관수출은 2026년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54.8% 증가하였으며, 유가증권 상장사의 세전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355.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반기 실적 개선은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의 납부세액 증가로 이어져 8월 법인세 신고분 증가에 반영되었다.

[표 16]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단위: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이익	73.6	△14.7	△24.5	61.7	25.4	254.1
	세전순이익	121.6	△25.4	△32.4	83.6	28.2	355.6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7] 유가증권 상장법인 주요 업종별 세전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

	2024 실적	2025			2026 상반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실적	증감액	증감률
전산업	179.5	230.1	50.6	28.2	374.6	296.7	380.8
전기·전자	65.1	105.4	40.4	62.0	332.4	294.9	786.5
일반서비스업	24.7	35.0	10.4	42.1	85.2	68.2	403.5
전기·가스	7.5	12.6	5.2	69.1	5.6	△0.4	△6.5
유통	6.1	8.3	2.3	37.2	6.6	2.2	48.9
IT서비스	7.9	9.4	1.4	17.9	6.6	2.0	44.4
운송장비·부품	39.7	34.2	△5.5	△13.9	21.4	0.4	2.1
운송·창고	8.4	5.6	△2.8	△33.5	1.5	△2.6	△63.4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편, 2026년 법인세 원천분은 8월까지의 수납실적, 최근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 추이¹⁹⁾와 금리 등 지표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8월 누적 기준 법인세 원천분은 17.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1.1조원(6.7%) 증가하였다. 법인세 원천분의 월별 세수흐름을 살펴보면, 3월까지의 전년동월 대비 등락을 보였으나 4월부터는 대체로 전년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2026년 법인세 원천분의 세수 증가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²⁰⁾, 삼성전자의 3분기 약 30조원 규모 현금배당²¹⁾에 따른 법인 원천분 증가, 진도율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8] 2026년 법인세 원천분 월별실적: 당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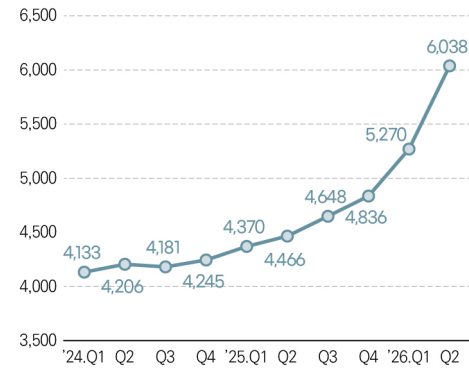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계
2025	2.5	1.5	1.4	2.2	3.2	1.7	2.1	1.4	16.1
2026	2.6	1.5	1.3	2.5	3.5	1.9	2.4	1.5	17.2
증감 (%)	0.2 (7.5)	△0.0 (△1.9)	△0.2 (△12.1)	0.2 (10.8)	0.3 (10.8)	0.1 (8.1)	0.3 (13.1)	0.1 (6.7)	1.1 (6.7)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9] 비금융법인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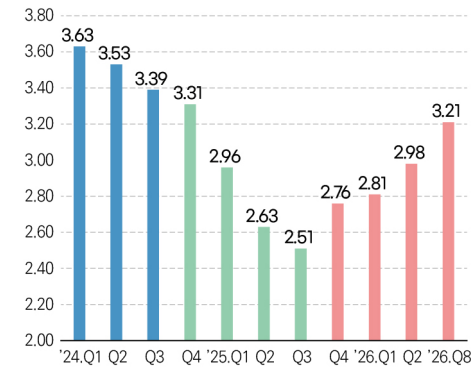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0] 예금은행 수신금리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9) 일반법인(금융업 제외)의 금융자산은 2025년 말 4,835.5조원에서 2026년 2분기 말 6,037.9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0) 한국은행 기준금리(%): ('26.6월) 2.50 → (7월) 2.75 → (8월) 3.00

21) 삼성전자 최근 배당 내역: ('24) 9.8조원 정규배당 ('25) 9.8조원 정규배당 및 1.3조원 특별배당 ('26) 약 30조원 규모 현금배당(정규배당 포함)

(자료: 삼성전자, 「2026년 주주환원 예상 규모 및 시행 방안」, 2026.8.21.)

(3) 부가가치세

2026년 부가가치세는 88.2조원으로, 2025년(79.2조원) 대비 9.1조원(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86.6조원)을 1.6조원(1.9%)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부가가치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 및 최근의 민간소비·수입 등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전망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표 19] 2026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추경예산 (B)	NABO 전망(C)	2026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79.2	86.6	88.2	9.1	11.5	1.6	1.9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8월 누적 65.1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7.4조원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수의 증가는 통관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분 세수 증가와 민간소비 확대 등에 따른 국내분 세수 증가에 기인한다.

수입분 세수는 8월 누적 39.3조원으로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4.6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가 상승 및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따라 원자재·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통관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특히 6~8월 수입분 세수는 전년동기 대비 3.2조원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국내분 세수는 8월 누적 2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조원 증가하였다.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통관수출 확대 등에 따른 환급 증가가 세수 증가폭을 제약하고 있다.

[표 20] 2026년 부가가치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단위: 조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누적
전체	26.1	△5.1	2.2	21.2	△1.5	1.9	24.6	△4.3	65.1
(전년대비 증감액)	(3.8)	(0.3)	(0.3)	(0.3)	(△0.3)	(0.4)	(3.2)	(△0.7)	(7.4)
국내분	22.5	△9.6	△2.5	16.0	△6.6	△3.0	18.7	△9.7	25.8
(전년대비 증감액)	(3.2)	(0.1)	(0.2)	(0.1)	(△0.6)	(△0.6)	(2.0)	(△1.6)	(2.7)
수입분	3.5	4.5	4.7	5.2	5.2	4.9	6.0	5.4	39.3
(전년대비 증감액)	(0.6)	(0.2)	(0.1)	(0.2)	(0.4)	(1.0)	(1.2)	(0.9)	(4.6)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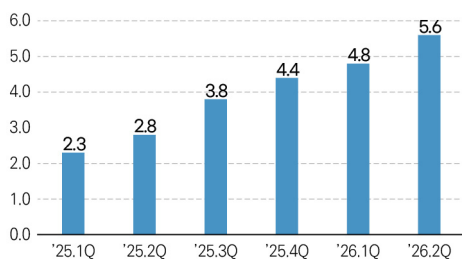
2026년 부가가치세수는 민간소비 회복과 통관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2025년 부가가치세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²²⁾도 증가세가 확대되는데 일부 기여하였다.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명목소비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6년 1분기 4.8%, 2분기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소비 지표를 살펴보면,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기업실적 개선,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 등으로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비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2026년 2분기의 소매판매액 지수와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6.0%, 8.4% 증가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2분기 3.0%로 이전 분기(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비회복 및 물가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1] 소비 지표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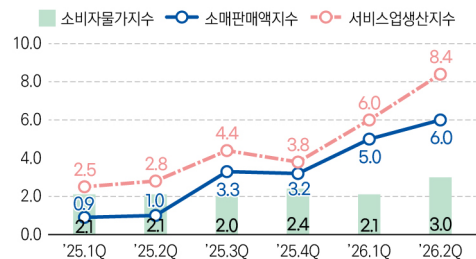
〈명목 민간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소비 관련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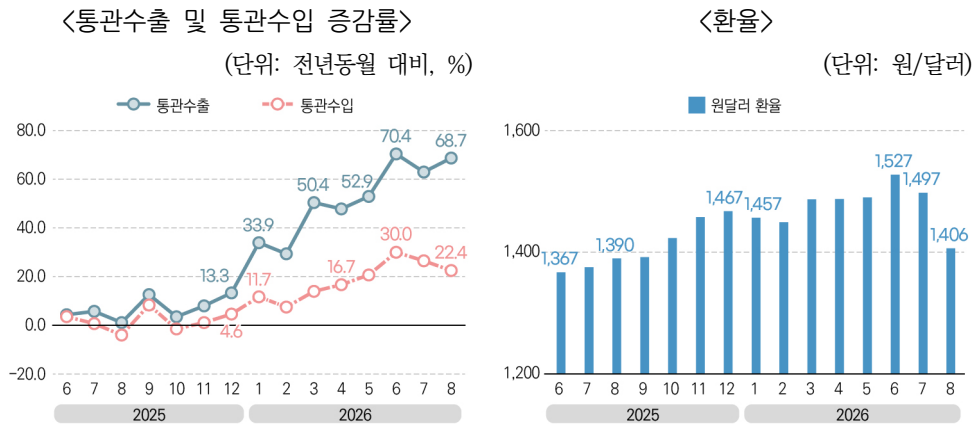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2) 부가가치세수(조원): ('23년) 73.8 ('24년) 82.2 ('25년) 79.2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통관수입의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8월 통관수입액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8.8% 증가하였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한 원화 기준 환산 통관수입의 증가율은 23.8%로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동 기간 수입의 증가는 수출·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29.3%), 원유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수입 증가(14.3%) 등에 기인한다.²³⁾ 원/달러 환율은 6월 이후 하락하였으나 8월 월평균 1,406원은 전년동월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수출 확대에 따른 환급 증가는 국내분 세수의 증가폭을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⁴⁾ 2026년 1~8월 통관수출액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52.8%, 원화 환산 기준으로는 59.6%로 크게 증가하였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컴퓨터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²⁵⁾ 수출 관련 환급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통관수출입 및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4) 2026년 1월 1일~9월 25일 기준 수출 증가액 상위 품목은 컴퓨터(297.8%), 반도체(181.6%), 석유제품(46.6%) 등이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 2026.10.1.)

25)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8.

(4) 기타 소비세수

2026년 부가가치세 외 기타 소비세수²⁶⁾는 38.1조원으로, 2025년(38.3조원) 대비 0.2조원($\Delta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38.0조원)을 0.1조원(0.4%)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명목 민간소비 및 통관수입 증가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관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표 21] 2026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8.3	38.0	38.1	$\Delta 0.2$	$\Delta 0.6$	0.1	0.4
개별소비세	8.5	8.9	9.0	0.5	6.1	0.1	1.5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0	12.5	$\Delta 0.8$	$\Delta 5.9$	$\Delta 0.6$	$\Delta 4.5$
관세	7.6	7.2	8.1	0.5	6.6	0.9	12.8
기타 ¹⁾	8.9	8.8	8.5	$\Delta 0.5$	$\Delta 5.3$	$\Delta 0.3$	$\Delta 3.7$

주: 1) 기타 항목은 교육세 및 주세로 구성됨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개별소비세

2026년 개별소비세는 9.0조원으로 2025년(8.5조원) 대비 0.5조원(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8.9조원)을 0.1조원(1.5%)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개별소비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과세대상 품목의 연간 소비량 전망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개별소비세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교통·에너지·환경세

김주현 추계세제분석관(kjh@assembly.go.kr, 6788-4836)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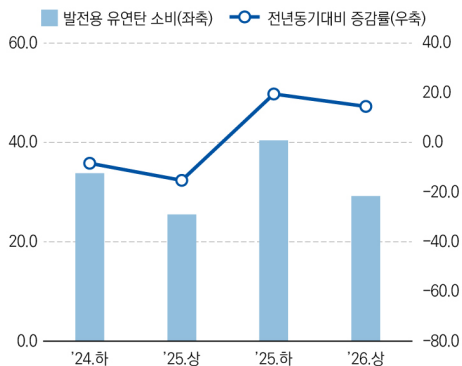
26) 이하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및 주세의 세수의 합계를 의미한다.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개별소비세는 8월 누적 6.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0.4조원(7.8%) 증가하였다. 개별소비세수의 증가에는 상반기 발전용 유연탄 소비 증가 및 품목별 한시적 세율 인하 조치의 종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상반기 원자력 발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석탄 발전의 증가로 소비량이 전년동기 대비 확대²⁷⁾되었다. 또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환원²⁸⁾에 따른 제도적인 요인도 개별소비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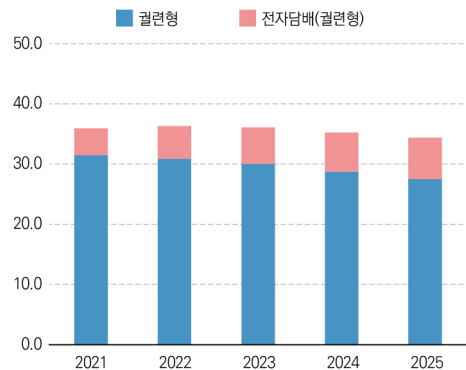
개별소비세 자동차분의 경우 7월부터 세율이 3.5%에서 5%로 환원됨에 따라 연간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경우 궐련담배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로의 수요 이동 및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과세²⁹⁾ 등을 감안할 때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추이
(단위: 백만 톤, %)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월별 에너지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4] 담배판매량 추이
(단위: 억갑)



자료: 재정경제부 제공자료

27) 에너지경제연구원, 「단기 에너지수요전망(2026)」, 2026.8.

28) 발전용 유연탄의 경우 2025년 말까지 기본세율 대비 15%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였다. 2025년 6월까지의 기본세율이 순 발열량에 따라 kg당 43/46/49원으로, 탄력세율은 kg당 36.5/39.1/41.6원을 적용하였다. 이후 2025년 7월부터 기본세율이 46원/kg으로 일원화되었으며, 탄력세율은 39.1원/kg으로 적용되었다. 이후 2026년부터는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였다.

29) 「담배사업법」 시행(2026.4.24.)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나,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5조원으로, 2025년(13.2조원) 대비 0.8조원(Δ 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6년 추경예산 13.0조원을 0.6조원(Δ 4.5%)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과 유류세 탄력 세율 변동으로 인한 효과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8월까지 전년동기와 유사한 8.6조원 수납되었다. 1~4월에는 유류세 인하조치의 단계적 환원 효과로 두 자릿수 누적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나,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휘발유 Δ 15%, 경유 Δ 25%)³⁰⁾됨에 따라 징수시차를 두고 5월부터 당월 세수가 전년동월 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현행 탄력 세율은 11월까지 적용될 계획으로³¹⁾,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말까지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세수를 전망하였다.

[표 22]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추이

(단위: 원/ℓ)

구분	인하 전	'24.7.	'24.11.	'25.5.	'25.11.	'26.3.27.
휘발유	529	423	450	476	492	450
경유	375	263	289	319	337.5	281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유류 수요량 추이를 살펴보면, 휘발유 소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경유 소비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에 따르면 2026년 1~8월 휘발유 소비량은 63.8백만bbl로 전년동기 대비 0.3% 증가한 반면, 경유 소비량은 88.2백만bbl로 8.2% 감소하였다.

30) 탄력세율(원/ℓ): ('24.7.~10.) 휘발유 423, 경유 263 → ('24.11.~'25.4.) 휘발유 450, 경유 289 → ('25.5.~10.) 휘발유 476, 경유 319 → ('25.11.~'26.3.26.) 휘발유 492, 경유 337.5 → ('26.3.27.~) 휘발유 450, 경유 281

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3호, 2026.9.30., 일부개정)

[표 23] 유종별 국내 수요 실적 추이

(단위: 백만bbl, %)

구분	2024년	2025년	'25.1~8.	'26.1~8.	증감률
휘발유	95.0	96.7	63.6	63.8	0.3
경유	155.1	145.2	96.1	88.2	△8.2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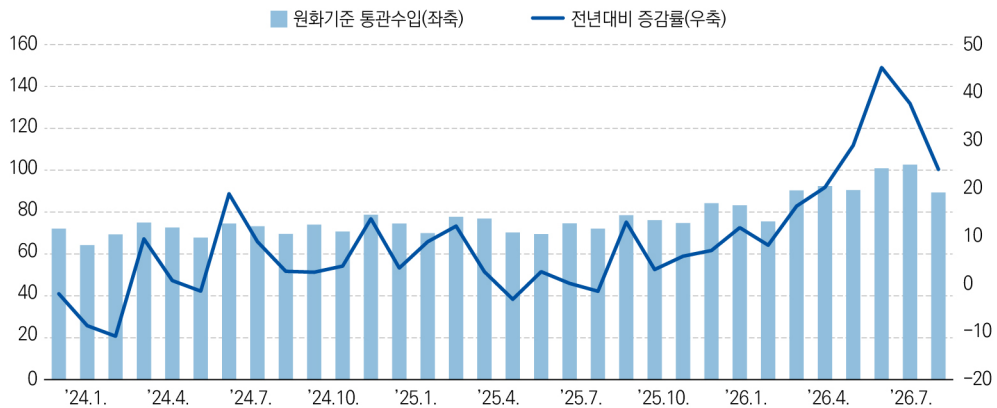
관세

2026년 관세는 8.1조원으로, 2025년(7.6조원) 대비 0.5조원(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경예산(7.2조원)을 0.9조원(12.8%)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관세는 8월까지의 수납실적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관세는 8월 누적 기준으로 5.4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5.0조원) 대비 0.4조원(8.5%) 증가하였다.

[그림 15]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만, 2026년 달러기준 통관수입액 증가 및 고환율의 영향³²⁾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이 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23.8% 증가한 것에 비하면, 관세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로 관세가 없거나 낮은 품목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여 실

32) 2025년 평균환율: 1,422원/\$, 2026년 1~8월 평균환율: 1,475원/\$

효세율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2026년 8월 누적 수입실적의 품목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 관세율이 없거나 낮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증가가 통관수입 총액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입품목 중 하나인 LPG 제조용 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도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³³⁾되고 있어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율 대비 관세 수입액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4] 2026년 주요 품목별 수입액 및 증감률

(단위: 억달러, %)

순번	HS코드	품목명	2026년(8월 기준 누계)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4,910	18.8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97	16.9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274	24.0
3	854232	메모리	272	121.7
4	271111	천연가스	176	-2.6
5	8486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51	62.9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3	-5.4
7	270112	유연탄	99	31.3
8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2	64.9
9	854239	기타	63	15.2
10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4	9.4

자료: 한국무역협회

33) 석유와 역청유 중 LPG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본세율은 3%이나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1~3월에는 0%, 4~9월에는 2%, 10~12월에는 1%의 세율이 적용중이다.

(5) 기타 자산세수

2026년 기타 자산세수³⁴⁾는 63.8조원으로, 2025년(41.4조원) 대비 22.4조원(5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52.7조원)을 11.1조원(21.0%)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자산세수는 상반기 주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를 인상에 따라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심으로 20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2026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5 실적 (A)	2026					
		추경 예산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추경예산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41.4	52.7	63.8	22.4	54.2	11.1	21.0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9.0	2.5	15.2	2.0	11.6
증권거래세	3.4	10.6	12.2	8.8	254.6	1.6	15.6
종합부동산세	4.7	4.6	5.1	0.4	8.9	0.4	9.6
기타 ¹⁾	16.8	20.5	27.5	10.7	63.9	7.0	34.1

주: 1) 기타 항목은 인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년도수입으로 구성됨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상속세 및 증여세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9.0조원으로, 2025년(16.5조원) 대비 2.5조원(1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추경예산(17.0조원)을 2.0조원(11.6%) 상회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10.6조원으로 전년 대비 0.5조원(5.2%)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는 전년 대비 2.0조원(30.8%) 증가한 8.4조원으로 전망된다. 2026년 상속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상속세 및 증여세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증권거래세

신미정 추계세제분석관(mjshin@assembly.go.kr, 6788-4837) 종합부동산세

34) 이하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한다.

세 및 증여세 전망은 8월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과 자산가격 상승 전망 등을 반영하였다.

2026년 8월 누적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는 13.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원(15.0%) 증가하였다. 증가는 주로 증여세(1.3조원)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자산가격의 상승 외에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26.5.9.) 발표 등으로 4~5월에 증여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2026년 8월 누적 상속세 및 증여세 수납실적

(단위: 조원, %)

구분	2025.1~8.(A)	2026.1~8.(B)	차이(B-A)	
			증감액	증감률
계	11.6	13.4	1.7	15.0
상속세	7.5	7.9	0.4	5.2
증여세	4.2	5.5	1.3	32.5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27] 2026년 증여세 월별실적: 당월 기준

(단위: 조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5	0.4	0.4	0.6	0.5	0.4	0.6	0.6	0.7
2026	0.5	0.5	0.7	0.7	0.6	0.8	0.8	0.8
전년대비	0.1 (39.1)	0.1 (21.1)	0.1 (22.9)	0.3 (54.7)	0.2 (51.1)	0.2 (24.7)	0.2 (33.1)	0.2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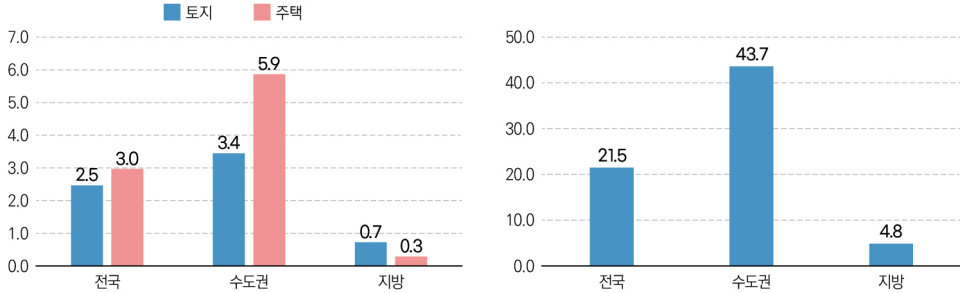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증가세가 주택 등 부동산 자산가격의 상승 추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증여세는 4~5월의 정책효과에 따른 높은 상승세는 특이치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한 월평균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림 16] 2026년 부동산 매매가격 및 증여거래 추이

<매매가격 상승률: 2026년 8월 기준>
(단위: 전년동월 대비, %)

<부동산 증여거래 증감률: 2026.1~8월>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증권거래세

2026년 증권거래세는 12.2조원으로, 2025년(3.4조원) 대비 8.8조원(25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추경예산(10.6조원)을 1.6조원(15.6%)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증권거래세는 8월까지의 증권거래세 수납실적과 최근 증권거래대금 추이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의 제도적 영향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6년 세수동향을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8월 누적 9.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동기 대비 7.0조원(318.9%) 증가하였다. 이는 증권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2026년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이 0%에서 0.05%³⁵⁾로, 코스닥 증권이 0.15%에서 0.20%로 각각 전년 대비 0.05%p 인상되었다.

2026년에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가운데 주가지수 상승과 함께 증권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되었다.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41.0조원에서 6월 86.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코스닥 시장도 1월 21.3조원 등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8월 누적 거래대금은 유가증권 시장이 9,32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5.6% 증가하였으며, 코스닥 시장이 2,54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8.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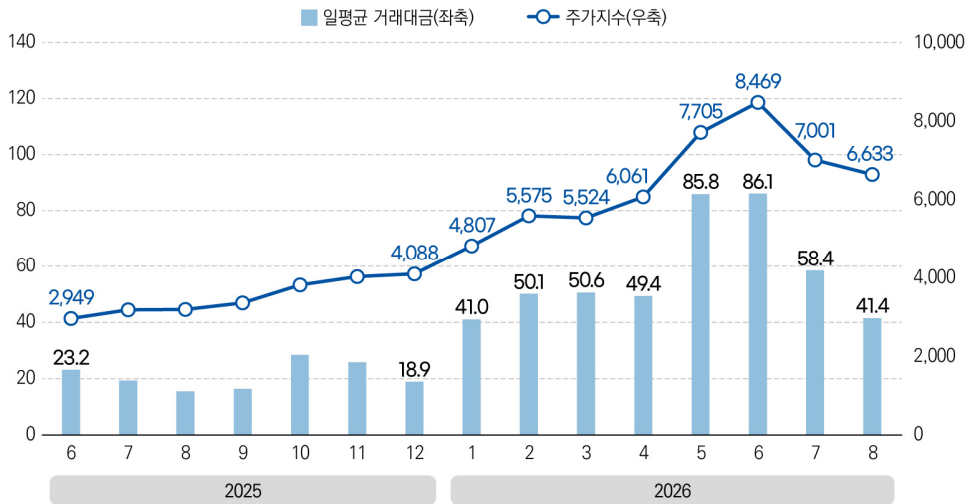
다만 최근에는 6월 주가지수가 고점에 도달한 이후 국내외 금리상승, 반도체 등 업황에 대한 우려, 투자자 매도세 등으로 증권거래대금이 상반기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 시장의 8월 월평균 주가지수는 6,633pt, 일평균 거래대금

35)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0.15%)를 과세하고 있다.

은 41.4조원으로 전년도 평균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해 2026년 연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7] 유가증권 시장의 주가지수 및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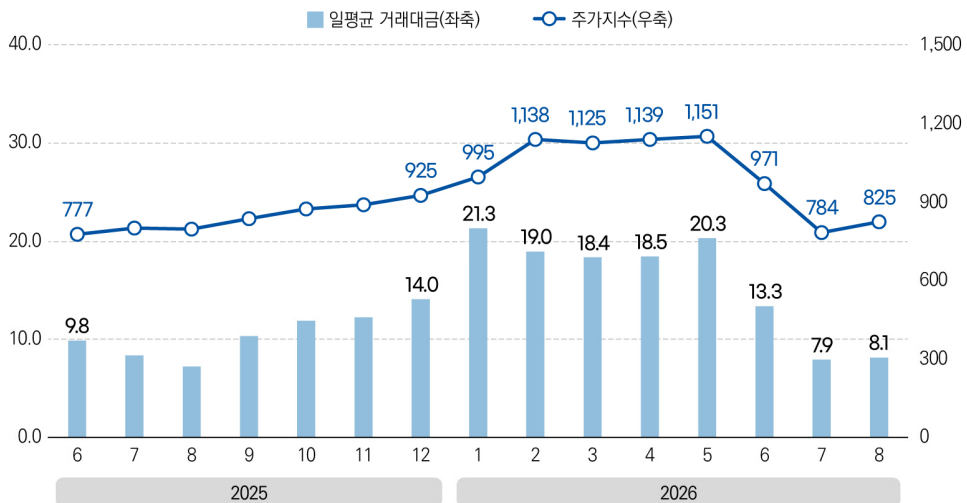
(단위: 조원, pt)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8] 코스닥 시장의 주가지수 및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단위: 조원, pt)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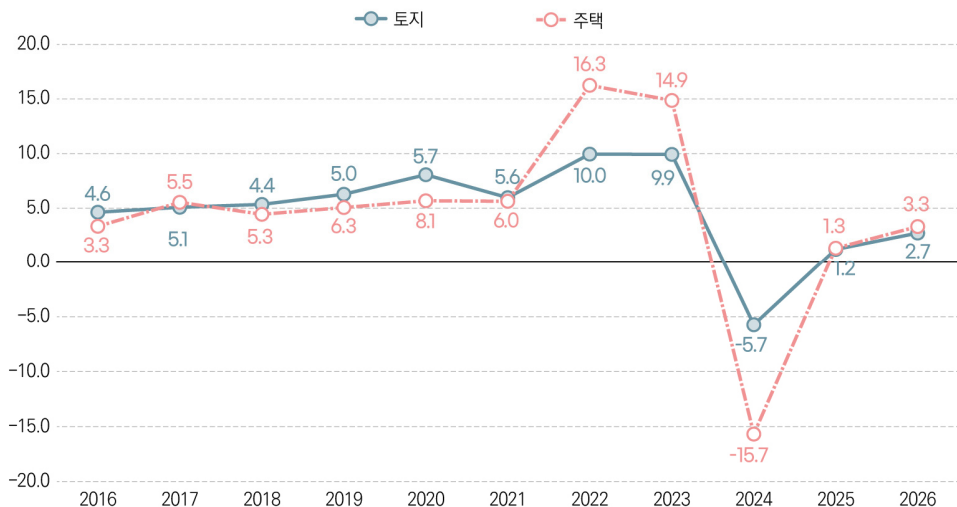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5.1조원으로, 전년(4.7조원) 대비 0.4조원(8.9%) 증가하여 추경예산(4.6조원) 대비 0.4조원(9.6%)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종합부동산세는 6월까지의 전년도 세수 분납분 실적³⁶⁾과 금년 부동산 시장가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2026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전국 평균 주택 7.8%, 토지 2.9%)하였다.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202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전망한 후 최근의 분납비율을 적용하여 2026년 종합부동산세수를 전망하였다.

[그림 19] 전국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주: 1. 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호수)

2.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지, 개별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가중평균값(가중치: 필지수)

자료: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6)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연도 6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BOX 1] 정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정부는 금년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2026년 국세수입을 478.6조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6년 국세수입이 추경예산을 상회하는 것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업종내 주요 기업의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인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부의 주요 세목별 전망 결과와 전년 대비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는 15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2.0조원(16.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득세 세부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반도체·금융 업종 등의 기업의 성과급 증가, 임금상승률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9.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8조원, 배당소득세는 반도체 주요 기업의 특별배당 등으로 전년 대비 4.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는 136.4조원으로 전년 대비 51.8조원(61.2%) 증가하면서 2026년 국세수입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도체 산업경기 호황에 따른 업종내 주요기업의 영업이익이 2025년 상반기 28조원에서 2026년 상반기에만 244.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4.6% 증가한 것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부가가치세는 89.0조원으로, 전년 대비 9.8조원(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민간소비의 회복 및 하반기 수입증가 전망 등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타 세목 중에는 상반기 증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증권거래대금이 확대되는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전년 대비 9.0조원, 11.1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금년 3월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 7% → 15%, 경유 10% → 25%)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정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25년 실적	'26년 추경예산	'26년 재추계	'25년 실적 대비		26년 추경예산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73.9	415.4	478.6	104.7	28.0	63.2	15.2
[일반회계]	361.5	398.7	455.3	93.8	25.9	56.6	14.2
◇ 내 국 세	330.2	368.1	424.3	94.1	28.5	56.2	15.3
○ 소 득 세	130.5	136.8	152.4	22.0	16.9	15.6	11.4
▪ 양도소득세	19.9	20.4	26.7	6.8	34.1	6.2	30.6
▪ 배당소득세	4.6	4.6	8.6	4.0	88.1	3.9	84.5
▪ 근로소득세	68.4	73.2	77.7	9.3	13.5	4.4	6.1
○ 법 인 세	84.6	101.3	136.4	51.8	61.2	35.0	34.6
○ 상 속 증 여 세	16.5	17.0	18.5	2.0	12.3	1.5	8.8
○ 부 가 가 치 세	79.2	86.6	89.0	9.8	12.4	2.4	2.8
○ 개 별 소 비 세	8.5	8.9	9.0	0.5	5.8	0.1	1.2
○ 증 권 거 래 세	3.4	10.6	12.4	9.0	260.9	1.9	17.7
○ 인 지 세	0.8	0.8	0.8	△0.0	△1.0	△0.0	△2.2
○ 과 년 도 수 입	6.8	6.1	5.8	△1.0	△14.6	△0.3	△5.1
◇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0	12.4	△0.8	△6.4	△0.7	△5.0
◇ 관 세	7.6	7.2	8.1	0.4	5.7	0.9	11.9
◇ 교 육 세	5.7	5.6	5.4	△0.3	△5.1	△0.2	△3.9
◇ 종합부동산세	4.7	4.6	5.1	0.4	8.5	0.4	9.2
[특별회계]	12.4	16.8	23.3	10.9	87.5	6.5	39.0
◇ 주 세	3.2	3.1	3.0	△0.2	△6.6	△0.1	△4.6
◇ 농어촌특별세	9.2	13.6	20.3	11.1	120.3	6.7	49.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

Ⅱ. 2027년 국제수입 전망

1. 2027년 거시경제여건 전망

2027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3.1%로 2026년 2.8%에서 개선될 전망이다.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하겠으나, 2027년에는 중동, 미국 등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동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가격, AI·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정도, 재정·통화 정책여력 등에 따라 국가별 성장률 변화 양상이 차별화될 전망이다.

2027년 세계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 충격이 완화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성장세 회복 강도는 AI 투자의 생산성 전환, 인플레이션과 금융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서비스업, 인프라 투자 등 내수 기반이 강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표 28]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p)

		2025	2026	2027
IMF (‘26.7.)	(세계)	3.5	3.0(Δ0.1)	3.4(0.2)
	(미국)	2.1	2.3(0.0)	2.2(0.1)
	(중국)	5.0	4.6(0.2)	4.1(0.1)
세계 은행 (‘26.6.)	(세계)	2.9	2.5(Δ0.1)	2.8(0.1)
	(미국)	2.1	2.2(0.0)	2.1(0.2)
	(중국)	5.0	4.2(Δ0.2)	4.3(0.1)
OECD (‘26.6.)	(세계)	3.4	2.8(Δ0.1)	3.1(0.1)
	(미국)	2.1	2.0(0.0)	1.8(0.1)
	(중국)	5.0	4.5(0.1)	4.3(0.0)

주: ()안은 직전 전망 대비 수정폭(%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백기홍 경제분석관(ghbaek@assembly.go.kr, 6788-4750)

전반적으로 2027년 세계경제의 성장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하방 요인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비료 등 원자재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재상승과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위험 등이다.

상방 요인은 중동전쟁의 조기 안정과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중동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수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어 원유·가스·비료가격이 하락하면 운송비와 제조원가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가계 실질소득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2027년 실질GDP는 2.7% 성장할 전망이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3.0%, 하반기 2.4%로 예상한다. 2026년 상반기의 성장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2027년의 성장경로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성장의 모습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2027년에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가세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설비투자과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기여도¹⁾는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7년 7.3%로 2026년 22.0%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예상이며(3.5% → 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는 개선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내수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0%로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예상인 점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2027년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상황 개선, 세계적인 수요감소 등을 반영하여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2027년에는 반도체 가격의 추가 상승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1) 순수출(총수출-총수입) 기준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과소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에서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효과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였다.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계산에는 산업연관표(2023년 연장표 기준)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중 수출의 수입유발액 비중(38.7%)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망에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AI 투자 감소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등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반도체 포함 수출 주력시장에서 중국의 추격과 저가공세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혼재하고 있다.

2027년 실질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2026년 상반기 소비증가율은 가계의 소득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향후 반도체 제조업의 매출 증가가 관련 산업 종사자의 피용자보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이 소비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실물 및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 증가율을 소폭 견인할 전망이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은 누적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높여 소비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7년 실질 설비투자는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7.1%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나,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7%까지 낮아져 연간으로는 6.4% 증가할 전망이다. 2026~2027년 2년에 걸쳐 설비투자 증가율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장비 반입 국면에 진입한 데 주로 기인한다. 이번 전망은 2026~2028년 중 국내 반도체 신규 팹의 장비 반입(Fab-in)이 집중된다는 계획을 반영하였다.

2027년 실질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1% 성장할 전망이다. 그간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이어져온 회복세에 더해, 2027년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가 성장 동력으로 가세하면서 개선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거래

2027년 통관수출은 AI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컴퓨터는 2026년 8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 대비 181.1%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2027년 증가율은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서 반도체·컴퓨터 등 IT 품목의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비IT 품목의 경우, 자동차 등의 현지생산 확대와 중국업체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해외시장 경합이 심화되고 있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통관수입은 수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자본재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

며 전년대비 9.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수출 증가에 따라 관련 중간재 수입이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여력 확대 등도 소비재 수입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본재·중간재 대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2026년 중동전쟁의 여파로 증가하였으나, 2027년에는 국제유가가 점차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망된다. 반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2.7%, 하반기 2.1%로 물가상승률의 흐름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6년 중 물가 상승을 주도한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고용

2027년 취업자 수는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반등,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18.0만명(0.6%)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115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 118만 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인턴 학기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의 고용 감소세가 최근 가속화되는 점은 총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7년 명목임금 상승률은 6.5%로 전망된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성과급 지급 증가의 영향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2027년 연평균 국고채금리(3년)는 2026년 대비 0.1%p 하락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 국고채금리의 하락이 전망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또한 국고채금리 하락 등에 따라 2027년 4.0%로 전망된다.

[표 29]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24	2025	2026	2027
실질GDP 성장률	2.2	1.1	3.5	2.7
민간소비	1.3	1.5	2.3	2.0
설비투자	1.0	1.5	6.9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4	3.0	4.2	4.1
경상수지(억달러)	1,000	1,231	4,300	4,400
통관수출	8.1	3.8	54.0	10.0
통관수입	△1.7	0.0	22.0	9.0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4.2	3.2	17.8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1	2.7	2.4
취업자수 증감(만명)	15.9	19.3	13.4	18.0
명목임금 상승률	2.9	3.1	3.2	6.5
국고채금리(3년)	3.1	2.6	3.6	3.5
회사채금리(3년, AA-)	3.7	3.1	4.3	4.0
명목GDP 성장률	6.5	4.4	22.0	7.3

주: 2024~2025년은 실적치, 2026년 및 2027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2. 2027년 국세수입 전망

가. 총괄

2027년 국세수입은 593.7조원으로, 2026년(480.5조원)²⁾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실적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 증가가 주로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과급 증가 및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득세 증가, 내수회복으로 인한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도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181.7조원으로, 2026년(152.1조원) 대비 29.6조원(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임금상승, 임금근로자 증가 등 고용지표 개선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증가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종합소득세도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자영업자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222.1조원으로, 2026년(138.3조원) 대비 83.8조원(6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수요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법인 영업실적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와 법인의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법인세 원천분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는 93.3조원으로 2026년(88.2조원) 대비 5.0조원(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수회복에 따른 민간소비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전망 등은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완만하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세목 중 소비세수는 내수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나,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1년 고액자산가 사망에 따른 연부연납이 2026년으로 종료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26년 급등한 증권거래대금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각각 전년 대비 1.5조원, 4.3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2) 이하 '2026년'은 이 보고서에 따른 202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국세수입 전망(593.7조원)은 정부 예산안(584.4조원)을 9.3조원(1.6%)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수회복과 대외거래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정부보다 높게 전제하여 국세수입을 전망한 점에 주로 기인한다.³⁾

다만, 최근 경제와 세수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아진 반도체 분야의 높은 변동성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은 세입여건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AI 투자의 확대 및 생산성 증가, 중동지역의 안정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등이 발생할 경우 국세수입 전망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30]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예산안 (B)	NABO 전망(C)	2027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480.5	584.4	593.7	113.2	23.5	9.3	1.6
일반회계	456.8	564.3	573.1	116.3	25.5	8.9	1.6
내국세	425.7	529.3	538.7	113.0	26.5	9.4	1.8
1. 소득세	152.1	180.0	181.7	29.6	19.4	1.7	0.9
2. 법인세	138.3	216.7	222.1	83.8	60.6	5.4	2.5
3. 상속세 및 증여세	19.0	15.6	15.6	△3.3	△17.6	△0.0	△0.0
4. 부가가치세	88.2	91.4	93.3	5.0	5.7	1.9	2.1
5. 개별소비세 ¹⁾	9.0	7.5	7.7	△1.4	△15.1	0.2	2.5
6. 증권거래세	12.2	10.7	10.7	△1.5	△12.2	0.1	0.6
7. 인지세	0.8	0.8	0.9	0.1	18.4	0.1	13.5
8. 과년도수입	6.1	6.6	6.7	0.7	11.2	0.1	1.4
교통·에너지·환경세	12.5	12.6	12.3	△0.2	△1.6	△0.3	△2.4
관세 ¹⁾	8.1	8.7	8.2	0.1	1.2	△0.5	△5.3
교육세	5.4	7.5	7.6	2.2	39.8	0.2	2.0
종합부동산세	5.1	6.2	6.4	1.3	25.5	0.1	2.1
특별회계	23.7	20.1	20.5	△3.2	△13.4	0.4	2.1
주세	3.0	3.0	3.0	0.0	0.1	0.1	2.0
농어촌특별세	20.7	16.1	16.4	△4.3	△20.8	0.3	2.0
기타 ¹⁾	-	1.1	1.1	1.1	-	0.0	4.3

주: 1) 2027년 예산안부터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담배분)가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특별회계의 기타로 표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련 세목 조정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3) 보다 구체적인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는 “II.3.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 세목별 전망

(1) 소득세

2027년 소득세는 181.7조원으로, 2026년(152.1조원) 대비 29.6조원(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안 180.0조원을 1.7조원(0.9%)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증가는 우선 반도체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인한 특별급여 지급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이외에도 내수회복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여건 개선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기업의 배당지급 증가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도 소득세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3.0조원(△1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2027년 NABO 소득세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소득세 계	152.1	180.0	181.7	29.6	19.4	1.7	0.9
신고분	50.1	47.2	48.9	△1.2	△2.4	1.7	3.6
종합소득세	23.3	24.3	25.0	1.8	7.7	0.8	3.1
양도소득세	26.9	22.9	23.9	△3.0	△11.2	0.9	4.0
원천분	102.0	132.8	132.8	30.8	30.2	0.0	0.0
이자소득세	6.6	7.6	7.1	0.5	6.9	△0.5	△6.7
배당소득세	7.1	13.2	11.2	4.1	57.1	△2.0	△15.1
사업소득세	5.1	4.5	4.7	△0.5	△8.8	0.2	4.4
근로소득세	78.1	102.4	104.4	26.3	33.7	1.9	1.9
연금소득세	0.9	1.0	1.0	0.1	16.9	0.1	6.1
기타소득세	2.7	2.9	2.9	0.2	7.2	0.1	2.6
퇴직소득세	1.4	1.3	1.5	0.1	5.6	0.2	14.3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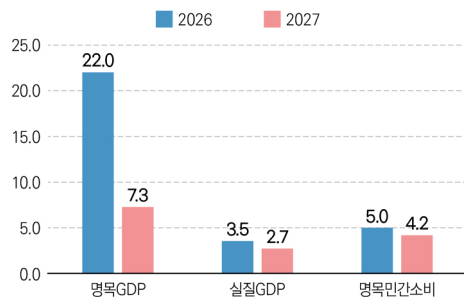
강민지 추계세제분석관(min1231@assembly.go.kr, 6788-4746) 종합소득세, 소득세 기타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2027년 종합소득세는 25.0조원으로, 2026년(23.3조원) 대비 1.8조원(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4.3조원)을 0.8조원(3.1%)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7년 종합소득세는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7년 종합소득세의 세원에 영향을 미치는 2026년 거시경제 지표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명목GDP 성장률 22.0%, 실질GDP 성장률 3.5%,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 5.0%로 전망하였다. 2027년 종합소득세수는 이러한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0]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전망
(단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표 32]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6.1분기	'26.2분기
전체 평균	1.1	3.2
- 1분위	21.3	35.7
- 2분위	39.8	△4.7
- 3분위	7.6	△5.4
- 4분위	△2.2	8.1
- 5분위	△0.7	3.3

자료: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2027년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2026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사업소득 증가율은 전체 자영업자 평균 기준으로 2026년 1분기는 1.1% 증가, 2분기는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분위의 경우 1분기에는 소폭의 감소세(△0.7%)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의 상위구간 집중도가 높음을 감안⁴⁾할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 및 5분위의 소득 증가는 종합소득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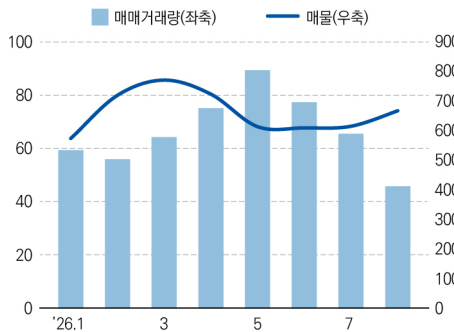
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기준으로,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의 11.8%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55.6%를 차지하고, 전체 결정세액의 86.8%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2026.3.)

양도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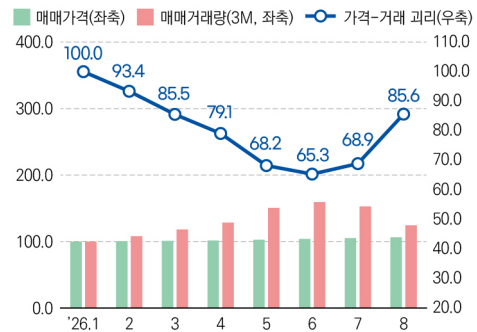
2027년 양도소득세는 23.9조원으로, 2026년(26.9조원) 대비 3.0조원(△1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2.9조원)을 0.9조원(4.0%)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근 거래량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2027년에는 2026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6년 주택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집중되면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소멸되면서 다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8,946건)을 정점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매매가격과 거래량의 괴리지수는 2026년 6월 65.3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7월 68.9, 8월 85.6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과 거래량 간 괴리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 둔화가 202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21] 아파트(서울) 거래 추이
(단위: 백건)



[그림 22] 아파트(서울) 가격-거래 괴리지수
(단위: 2026.1.=100)



주: 가격-거래 괴리지수 = 가격지수/거래량(3M) × 100 (2026.1=100 기준)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 제한, LTV 직접 규제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6월을 정점으로 축소되는 흐름⁵⁾을 보이는 것도 거래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거주 요건 강화, 다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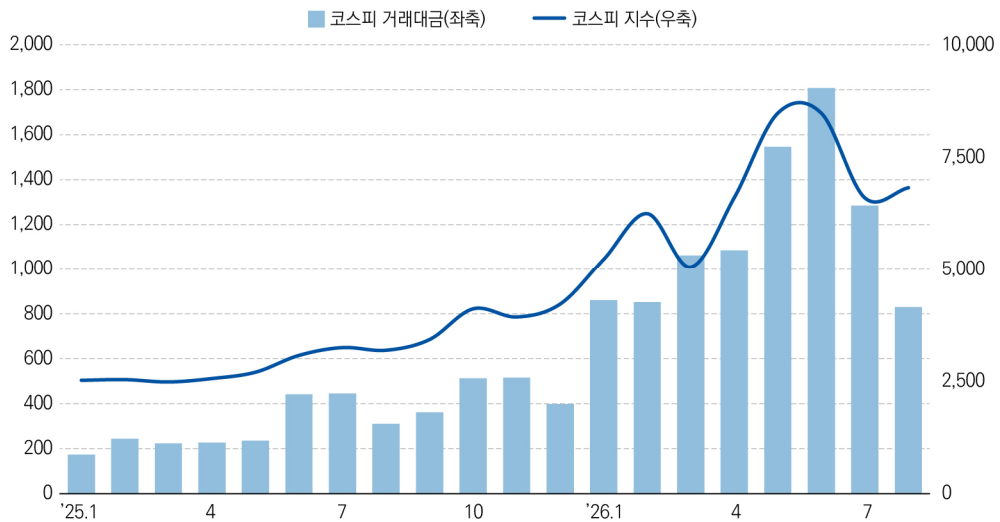
5)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조원): ('26.5월) 6.9 (6월) 7.6 (7월) 5.5 (8월) 3.4

자 증가 한시 완화 등)에 따른 세부담 변화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분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6년 상반기 주식시장 호황 이후 하반기 들어 거래대금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하여 2027년 주식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하반기 중 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처분 등에 따른 증가 요인을 일부 반영하여 추계하였다.

[그림 23] 코스피 거래대금 및 지수 추이: 2025~2026.8.

(단위: 조원,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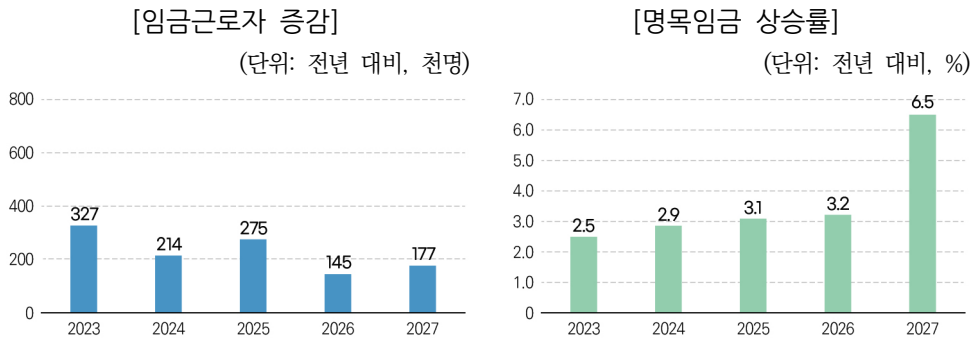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소득세

2027년 근로소득세는 104.4조원으로, 2026년(78.1조원) 대비 26.3조원(33.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예산안(102.4조원)을 1.9조원(1.9%)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7년 근로소득세 전망의 전제인 고용지표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임금근로자 수가 17.7만명 증가하고, 명목임금은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런 고용지표 개선은 근로소득세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임금근로자 증감 및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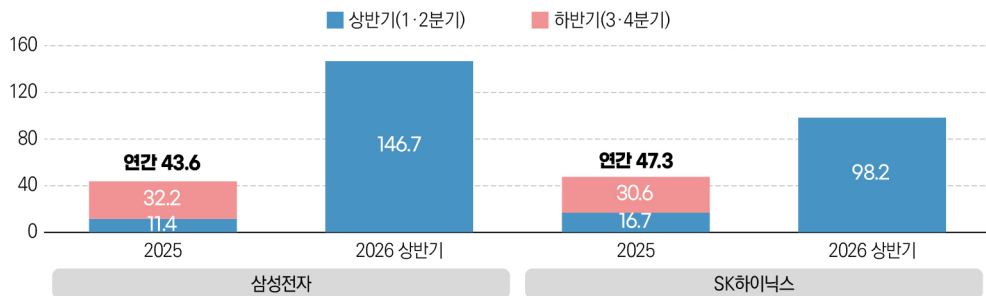
주: 2026년과 2027년은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한편,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주요 기업 영업이익의 높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7년 반도체 주요 기업의 성과급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지표의 개선과 함께 이러한 반도체 주요 기업의 성과급 확대 등을 반영하여 2027년 근로소득세수를 전망하였다.

[그림 25] 2026년 상반기 반도체 주요기업 영업이익

(단위: 조원)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소득세 기타

소득세 세부세목 중 주요 세목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세(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전망은 다음과 같다.

이자소득세는 2027년 7.1조원으로, 2026년(6.6조원) 대비 0.5조원(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7.6조원)을 0.5조원(△6.7%)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6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⁶⁾ 등으로 향후 예금은행 수신금리 상승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배당소득세는 2027년 11.2조원으로, 2026년(7.1조원) 대비 4.1조원(5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3.2조원)을 2.0조원(△15.1%) 하회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이익 호조⁷⁾ 등에 따른 배당 증가로 2027년 배당소득세는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외에도 사업소득세(4.7조원), 기타소득세(2.9조원), 퇴직소득세(1.5조원), 연금소득세(1.0조원)는 경제성장 및 민간소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세입 여건의 개선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6) 한국은행 기준금리(%): ('25.5.29.~'26.7.15.) 2.5 → (7.15.~8.26.) 2.75 → (8.26.~) 3.0

7) 반도체 주요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 집계액의 증권사 컨센서스('26.10.21. 기준, 조원): ('25년 실적) 90.8 ('26년) 634.2(전년 대비 598.4% 증가) ('27년) 964.3(52.1%)

(2) 법인세

2027년 법인세는 222.1조원으로, 2026년(138.3조원) 대비 83.8조원(6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16.7조원)보다 5.4조원(2.5%)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신고분은 194.5조원으로, 2026년 대비 82.9조원(74.3%) 증가하며, 정부 예산안(190.7조원)을 3.7조원(2.0%)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원천분은 27.6조원으로 2026년 대비 0.9조원(3.3%) 증가하며, 정부 예산안(26.0조원)을 1.6조원(6.3%)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3] 2027년 NABO 법인세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법인세	138.3	216.7	222.1	83.8	60.6	5.4	2.5
- 신고분	111.6	190.7	194.5	82.9	74.3	3.7	2.0
- 원천분	26.7	26.0	27.6	0.9	3.3	1.6	6.3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7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6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과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⁸⁾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우선 2026년 상반기 법인 실적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의 영업이익과 세전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4.1%, 355.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수익성 개선 흐름은 유가증권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박지원 추계세제분석관(jwpark1209@assembly.go.kr, 6788-4839) 법인세 신고분
이유섭 추계세제분석관(useuplee@assembly.go.kr, 6788-4838) 법인세 원천분

8) 증권사의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조회일(2026.9.18.) 이전 3개월간 증권사가 전망한 290개 비금융 상장법인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표 34] 최근 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상장법인(한국거래소) ¹⁾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4	2025	2026 상반기	2024	2025 ³⁾	2026 ³⁾	
						1분기	2분기
매출액증감률	5.4	6.1	28.8	4.2	2.5	13.5	26.7
영업이익증감률	61.7	25.4	254.1	36.9	-	-	-
세전순이익증감률	83.6	28.2	355.6	17.4	-	-	-
영업이익률 ²⁾	6.7	7.9	19.4	5.4	6.2	13.2	16.9
세전순이익률 ²⁾	4.9	6.1	19.3	5.2	6.3	15.4	23.1

주: 1)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영업이익률 및 세전이익률은 해당 연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및 세전순이익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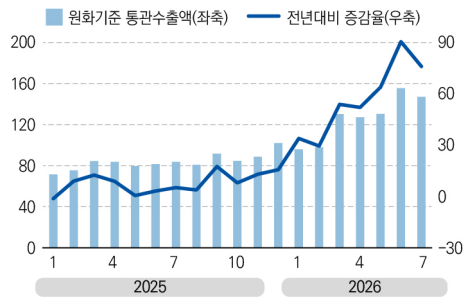
3) 「기업경영분석」의 2026년 분기 실적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한 속보치로, 상장기업은 DART 공시자료, 비상장기업은 표본조사를 이용해 산출함. 2025년 연간 속보치 및 분기 자료에서는 영업이익과 세전순이익의 금액 실적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6년 상반기 법인 영업실적은 AI 관련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원화기준 통관수출액⁹⁾은 2026년 7월 누적 기준 885.3조원(5,950.6억 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58.0%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도 5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8월까지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전년동기 대비 171.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고, 석유제품과 선박도 각각 41.2%, 11.3%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 원화기준 통관수출액은 월별 통관수출액(달러기준)에 월평균 환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26]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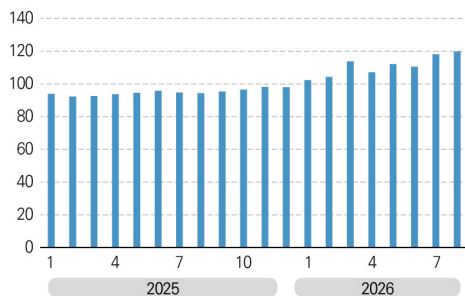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35] 2026년 8월 누적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품목	증감률 (전년 대비)
반도체	171.7
석유제품	41.2
컴퓨터	302.4
선박	11.3
석유화학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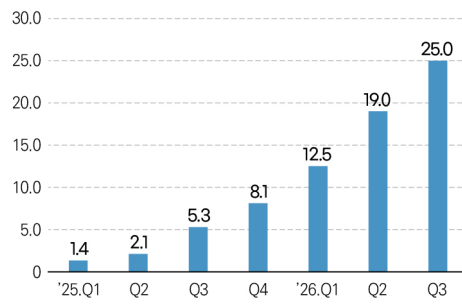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그림 27] 순상품교역지수 추이
(단위: 2020=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28] 반도체 가격(DDR4 8GB)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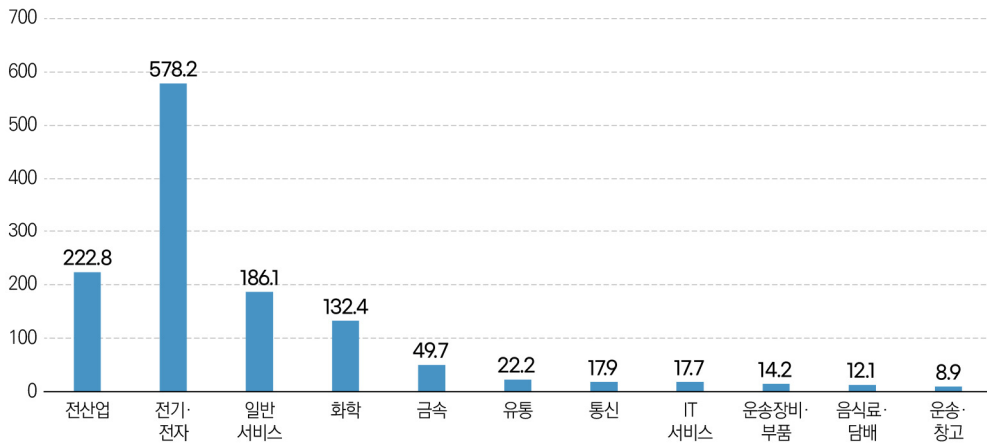


주: DDR4 8Gb(1G×8) D램 고정거래가격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월별 수출입 동향」

이러한 상반기의 법인 영업실적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연결 기준)에 따르면 2026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2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업종별로는 2024년부터 실적이 반등한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57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반서비스(186.1%), 화학(132.4%), 금속(49.7%) 등도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업실적 개선은 2027년 법인세 신고분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6년 내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소득이 증가하는 점도 신고분 세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9] 2026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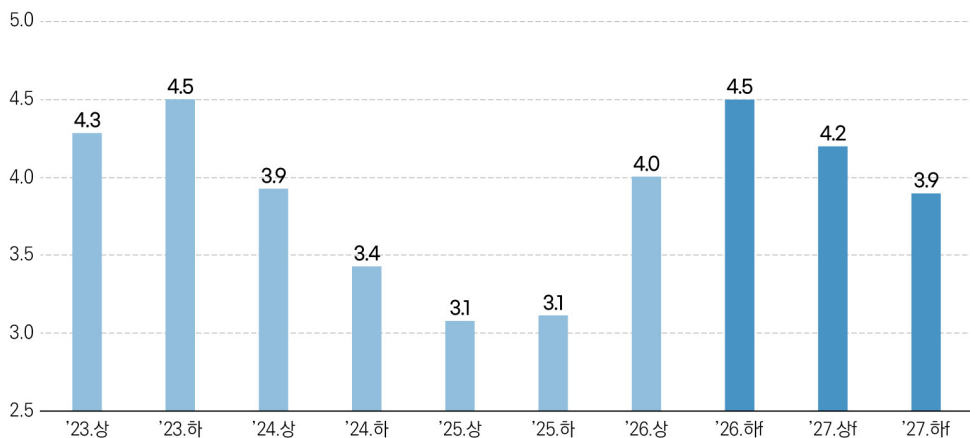
주: 조회일 기준 3개월간 비금융업 상장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각 증권사 전망치의 평균

자료: FnGuide(조회일: 2026.9.18.)

한편, 2027년 법인세 원천분은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배당¹⁰⁾ 확대 가능성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와 경제성장세 완화에 따라 회사채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전제하여 2026년 대비 0.9조원(3.3%) 증가한 27.6조원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0] 시장금리(회사채, 3년, AA-) 실적 및 전망

(단위: %)



주: f는 전망값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10) 법인이 투자신탁 등을 통해 얻는 배당수익의 경우, 법인세 원천분으로 과세된다.

(3) 부가가치세

2027년 부가가치세는 93.3조원으로, 2026년(88.2조원) 대비 5.0조원(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91.4조원)을 1.9조원(2.1%)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36] 2027년 NABO 부가가치세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부가가치세	88.2	91.4	93.3	5.0	5.7	1.9	2.1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2027년 부가가치세 전망의 전제인 거시경제지표 전망을 살펴보면, 명목 민간소비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비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등을 감안하면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6년 5.0%에서 2027년 4.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¹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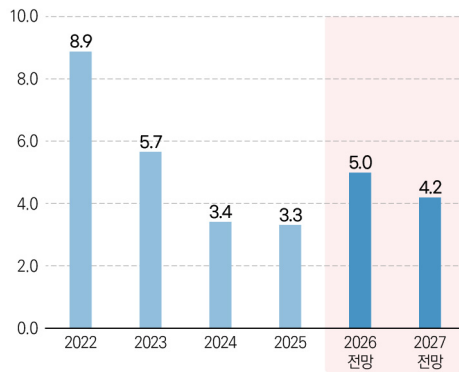
통관수입의 경우 수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원자재·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하락하는 추세¹²⁾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감안할 때 수입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 kim@assembly.go.kr, 6788-4647)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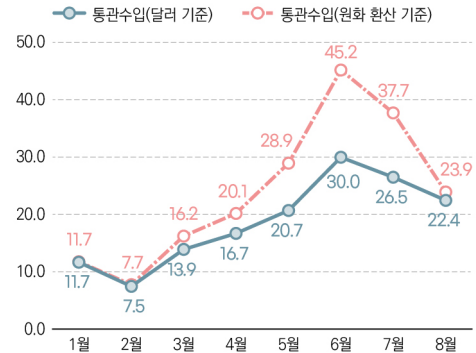
1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12) 월평균 환율(원/달러): ('26년 1월) 1,449 (2월) 1,449 (3월) 1,487 (4월) 1,487 (5월) 1,490 (6월) 1,527 (7월) 1,497 (8월) 1,406

[그림 31]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실적 및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그림 32] 2026년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기타 소비세수

2027년 기타 소비세수는 39.9조원으로 2026년 전망 38.1조원 대비 1.8조원(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40.3조원)을 0.3조원(△0.8%) 하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소비세수는 2027년부터 금융보험업자 세율인상¹³⁾에 따른 교육세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나, 증가폭은 발전용 유연탄 소비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소 및 유류소비 감소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소로 인하여 제약될 전망이다.

[표 37] 2027년 NABO 기타 소비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소비세수	38.1	40.3	39.9	1.8	4.8	△0.3	△0.8
개별소비세	9.0	8.5	8.8	△0.3	△2.8	0.2	2.7
교통·에너지·환경세	12.5	12.6	12.3	△0.2	△1.6	△0.3	△2.4
관세	8.1	8.7	8.2	0.1	1.3	△0.5	△5.3
기타 ¹⁾	8.5	10.4	10.6	2.2	25.6	0.2	2.0

주: 1) 기타 항목은 교육세 및 주세로 구성됨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개별소비세

2027년 개별소비세는 8.8조원으로 2026년(9.0조원) 대비 0.3조원(△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8.5조원)을 0.2조원(2.7%) 상회하는 수준이다.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개별소비세

이정훈 추계세제분석관(nororand@assembly.go.kr, 6788-4669) 교통·에너지·환경세

김주현 추계세제분석관(kjh@assembly.go.kr, 6788-4836)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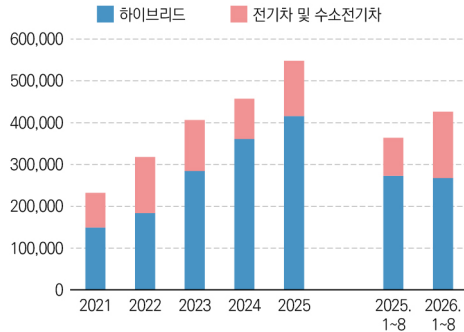
13)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되었다. 개정세법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징수기준 2027년부터 세수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2027년 개별소비세의 감소는 발전용 유연탄 소비 감소 전망 등에 따른 세수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다만, 자동차 등 과세대상 물품의 소비 증가 및 친환경차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감소세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소비세 자동차분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세에 따른 차량 판매 확대와 2026년 7월 이후 세율 환원(3.5% → 5%)의 영향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7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종료되고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축소될 경우¹⁴⁾ 2027년 세수가 0.2조원 증가¹⁵⁾하는 효과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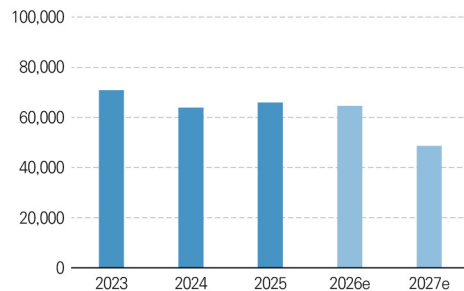
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의 소비량이 미세먼지 관리에 따른 석탄 발전 제한과 신재생·원자력 발전의 증가 등으로 2026년 6,463만톤에서 2027년 4,866만톤으로 24.7% 감소할 것으로 전망¹⁶⁾됨에 따라, 소비량 축소를 세수 전망에 반영하였다.

[그림 33]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 추이
(단위: 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34] 발전용 유연탄 소비량 실적 및 전망
(단위: 천톤)



주: 2026~2027년은 전망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4)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원)을 2026년 말 종료하고,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감면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축소한 뒤 2028년말 종료하는 내용이며,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는 감면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27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축소한 뒤 2028년말 종료하는 내용이다.

1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6.10.

16)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기 에너지수요전망(2026~2030)」, 2026.9.

교통·에너지·환경세

202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3조원으로, 2026년(12.5조원) 대비 0.2조원(Δ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2.6조원)을 0.3조원(Δ 2.4%)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7년 휘발유 소비량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유 소비량은 환경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류세 탄력세율의 경우 현행 인하 조치가 2027년 상반기까지 유지된 후 일부 환원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를 전망하였다.

[표 38] 휘발유 및 경유 소비량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bbl,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휘발유 (증감률)	90.4 (2.3)	95.0 (5.2)	96.7 (1.7)	97.8 (1.1)	98.6 (0.9)
경유 (증감률)	151.2 (Δ 1.0)	145.7 (Δ 3.6)	136.5 (Δ 6.3)	131.3 (Δ 3.8)	128.5 (Δ 2.1)

주: 2023~2025년은 실적, 2026~2027년은 전망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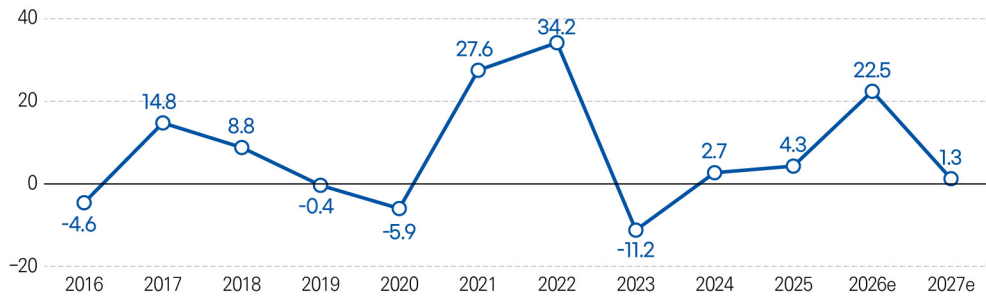
관세

2027년 관세는 8.2조원으로, 2026년(8.1조원) 대비 0.1조원(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8.7조원)을 0.5조원(Δ 5.3%) 하회하는 수준이다.

2027년 관세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전망치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35]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감률 실적 및 전망

(단위: %)



주: 2026~2027년 통관수입 증감률은 NABO 전망치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기타 자산세수

2027년 기타 자산세수는 56.7조원으로 2026년(63.8조원) 대비 7.0조원(△1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안(56.0조원)을 0.7조원(1.3%) 상회하는 수준이다. 기타 자산세수의 감소는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세 연부연납분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2026년 급등하였던 증권거래대금의 하향 조정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표 39] 2027년 NABO 기타 자산세수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예산안 (B)	NABO 전망(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기타 자산세수	63.8	56.0	56.7	△7.0	△11.0	0.7	1.3
상속세 및 증여세	19.0	15.6	15.6	△3.3	△17.6	△0.0	△0.0
증권거래세	12.2	10.7	10.7	△1.5	△12.2	0.1	0.6
종합부동산세	5.1	6.2	6.4	1.3	25.5	0.1	2.1
기타 ¹⁾	27.5	23.5	24.0	△3.5	△12.6	0.5	2.2

주: 1) 기타 항목은 인지세, 과년도수입,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됨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상속세 및 증여세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hkkim@assembly.go.kr, 6788-4647) 증권거래세

신미정 추계세제분석관(mjshin@assembly.go.kr, 6788-4837)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2027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15.6조원으로, 2026년(19.0조원) 대비 3.3조원(△1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15.6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8.1조원으로 2026년(10.6조원) 대비 2.5조원(△23.6%) 감소하면서, 정부 예산안(7.8조원)을 0.3조원(3.7%)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세는 7.6조원으로 2026년(8.4조원) 대비 0.8조원(△10.1%) 감소하고, 예산안(7.9조원)을 0.3조원(△3.7%)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상속세는 고액자산가 사망시 다년간에 걸쳐 분납되는 연부연납 금액을 구분하여 추정한 후, 당해연도 발생분을 사망자수 증감률 전망 및 자산가격 상승률 전망치 등을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2027년 상속세수 감소는 2021년 고액 자산가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급등한 연부연납 금액의 납부가 2026년에 종료¹⁷⁾됨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추정치 감소(△2.1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표 40] 연도별 상속세 연부연납 금액 추정치

(단위: 조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e
연부연납분	3.5	3.9 (0.4)	4.0 (0.1)	4.3 (0.3)	4.5 (0.2)	4.5 (△0.1)	2.4 (△2.1)
신규발생분	2.3	0.4	0.3	0.4	0.4	0.4	0.4
가산이자율	1.2	1.2	2.9	3.5	3.1	3.1	3.6

주: 1. 연부연납분은 연부연납 신규발생분을 바탕으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이자율을 반영하여 연도별로 금액을 추정

2. ()안은 전년대비 증감분

자료: 국세청 자료(연부연납분 신규발생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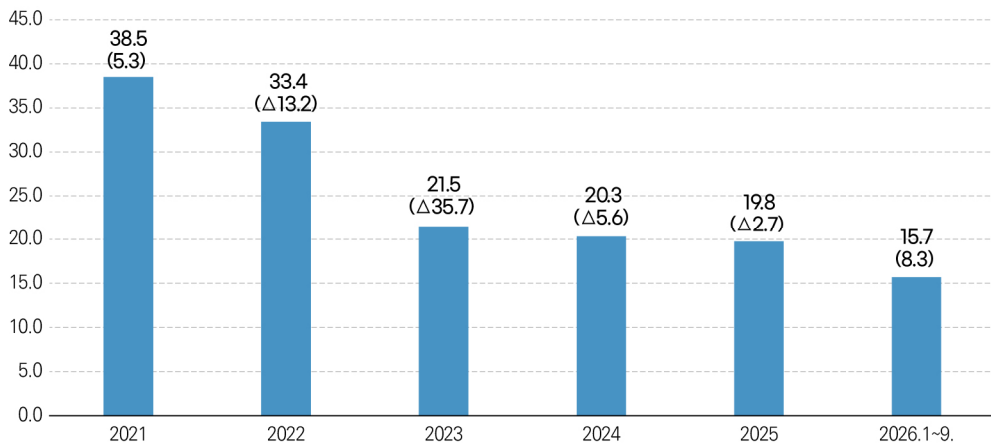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건수를 금리, 자산가격 상승률 및 정책더미 변수 등을 통해 추정한 후, 추정된 부동산 증여건수에 가계 금융자산 증가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수를 추정하였다. 2027년 증여세수는 2026년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증여건수의 감소¹⁸⁾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17) 2021년 연부연납 금액은 상속세 신고연도 포함 6년에 걸쳐 연부연납되었으며, 이후 세법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상속세 신고연도 포함 11년에 걸쳐 연부연납되고 있다.

18)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2년 5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발표된 이후, 2023년 증여건수는 전년 대비 35.7% 감소하는 등 예년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6] 부동산 증여건수 추이

(단위: 만건, %)



주: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2026년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대한민국 법원(부동산 증여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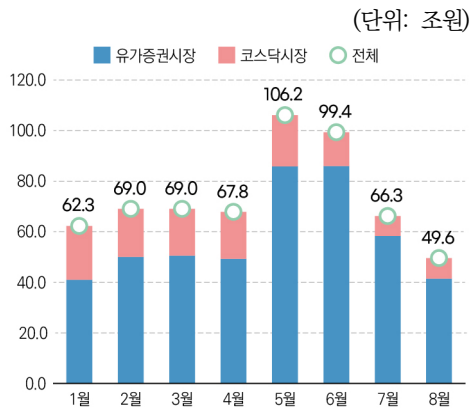
증권거래세

2027년 증권거래세는 10.7조원으로, 2026년 전망(12.2조원) 대비 1.5조원(Δ 1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0.7조원)을 0.1조원(0.6%) 상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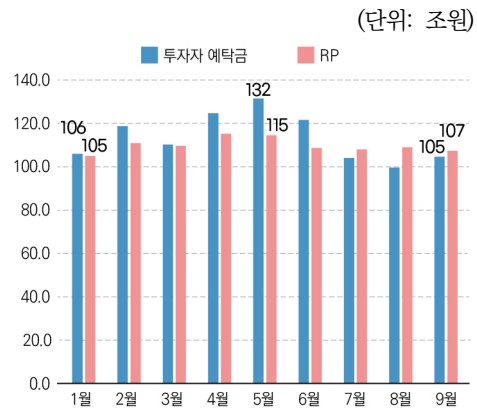
2027년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될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증권거래대금은 2026년 상반기 큰 폭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대내외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2026년 7~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50.3조원으로 상반기 60.1조원 대비 감소하였고, 코스닥 시장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7~8월 8.0조원으로 상반기 18.4조원 대비 감소하였다.

증시 주변자금도 축소되는 추세로, 투자자예탁금은 5월 132조원에서 9월 105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잔액 역시 5월 115조원에서 9월 107조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7] 2026년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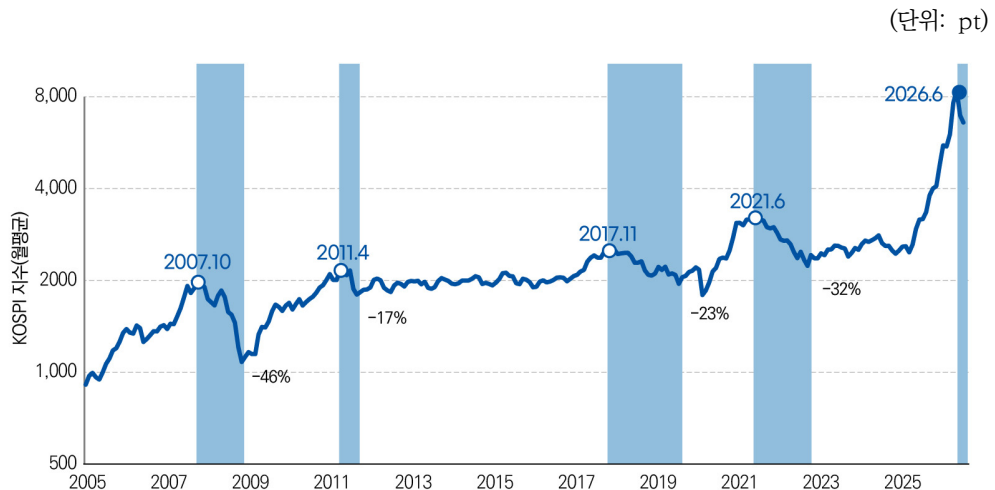
[그림 38] 2026년 월별 증시
주변자금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넥스트레이드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과거에도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 일정기간 조정되는 국면이 나타난 바 있는데, 이러한 과거 시장 변동성 추세와 최근의 증시 주변의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하여, 202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증권거래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9]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지수 추이



- 주: 1. 월평균 KOSPI 지수 기준(1980.1.4.=100)
 2. 음영은 월평균을 기준으로 고점일로부터 이후 24개월 내 저점일까지를 가리키며, 하락률은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률로 산출(음영은 글로벌 금융위기('07.10.~'08.11.), 남유럽 재정위기('11.4.~'11.9.) 미·중 무역분쟁('17.11.~'19.8.),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21.6~'22.10.) 시기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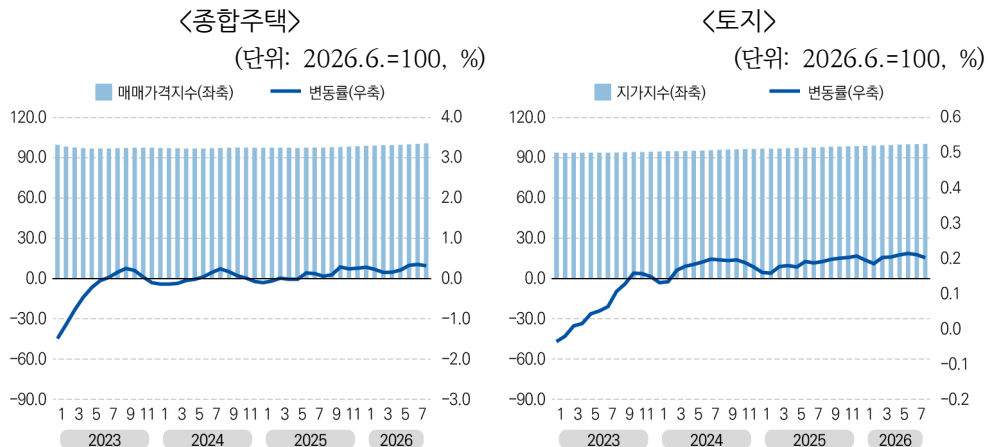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2027년 종합부동산세는 6.4조원으로, 2026년(5.1조원) 대비 1.3조원(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예산안(6.2조원)을 0.1조원(2.1%) 상회하는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27년 공시가격 변동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결정세액을 전망한 뒤, 분납에 따른 징수시기의 차이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2023년 8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공급 대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지가의 경우 2023년 2분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2027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러한 시장요인 외에도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택분 과세대상 기준금액 조정,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확대(12억원→14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 및 2주택자 이하에 대한 세율 인상(최고세율 2.7%→3.5%) 등 세수효과가 세수증가분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0.75조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40] 부동산 유형별 월간 매매가격지수 및 변동률 추이



주: 월간 매매가격지수 기준년도는 종합주택과 토지 모두 2026년 6월(2026.6=100)이며, 변동률은 전기 대비 변동률을 의미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3.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국세수입 전망(593.7조원)은 정부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584.4조원)보다 9.3조원(1.6%)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인 2027년 거시경제 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을 7.3%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 전망 4.6% 보다 2.7%p 높은 수준이다. GDP의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등의 전망을 실질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는 2027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2.0%, 2.1% 등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설비투자 증가율을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을 4.1%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설비투자 증가율을 3.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을 3.0%로 전망하였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민간투자의 증가세를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대외경제 지표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통관수출 및 통관수입 증가율을 각각 전년 대비 10.0%, 9.0%로 전망하여 통관수출 1.0%, 통관수입 3.0% 증가를 전제한 정부에 비해 기업실적의 호조세가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고용시장의 개선세도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구체적인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의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을 6.5%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3.3%로 2026년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취업자수 증가분은 국회예산정책처가 18.0만명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취업자수 증가분 전망(17.0만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 41] 2027년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 전망 비교

(단위: %, 억달러, 만명)

	2025 실적	2026전망		2027전망	
		정부 (‘26.8.)	NABO (‘26.9.)	정부 (‘26.8.)	NABO (‘26.9.)
명목GDP 성장률	4.4	12.3	22.0	4.6	7.3
실질GDP 성장률	1.1	3.0	3.5	2.2	2.7
민간소비	1.5	2.0	2.3	2.1	2.0
설비투자	1.5	5.0	6.9	3.3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3.2	4.2	3.0	4.1
경상수지	1,231	2,900	4,300	2,450	4,400
통관수출 증가율	3.8	40.0	54.0	1.0	10.0
통관수입 증가율	0.0	20.0	22.0	3.0	9.0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2.6	2.7	2.2	2.4
취업자수 증감	19.3	15.0	13.4	17.0	18.0
명목임금 상승률	3.1	3.2	3.2	3.3	6.5

주: GDP 구성요소 증가율은 실질가격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양 기관의 세목별 전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전망의 차이는 주로 법인세(5.4조원)에서 발생하며, 소득세(1.7조원), 부가가치세(1.9조원)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2026년 정부 재추계(136.4조원) 대비 80.3조원(58.9%) 증가한 216.7조원으로 편성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법인세를 2026년 전망(138.3조원) 대비 83.8조원(60.6%) 증가한 222.1조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정부 예산안 보다는 5.4조원(2.5%)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주요 거시경제 전제의 차이에 따른 법인실적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내외 수요의 증가, 경제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입, 명목 GDP 성장률 등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차이가 법인 영업이익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망 시점에 따른 2026년 3분기 법인 실적 반영 여부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시점인 2026년 상반기까지의

법인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법인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주요기업의 3분기 잠정실적 발표¹⁹⁾ 등에서 나타난 실적 증가세를 반영하여 전망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180.0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81.7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예산안보다 1.7조원(0.9%)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소득세에서의 전망 차이는 주로 근로소득세(정부 예산안 대비 1.9조원)에서 발생하였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망 차이는 임금상승률 등 고용지표에 대한 전제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취업자 수 증가분은 국회예산정책처(18만명)와 정부(17만명)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6.5%로 2026년(3.2%) 수준에서 상승세가 확대된 반면, 정부는 2027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3.3%로 전년대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의 차이는 기업실적의 증가에 따른 성과급 인상 등의 임금반영 수준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데 주로 기인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정부는 91.4조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93.3조원으로 전망하여, 정부 예산안보다 1.9조원(2.1%)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서의 전망 차이는 내수회복 등에 따른 명목 민간소비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데 주로 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및 2027년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5.0%, 4.2%로 전망하여, 정부 전망(2026년 4.6%, 2027년 4.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2.4%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2.2%로 전망하였다.

19) 반도체 업종내 주요 기업인 삼성전자의 2026년 3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 잠정치)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107.4조원으로 전년동기(12.1조원) 대비 782.5% 증가하였다.(삼성전자 보도자료,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잠정실적 발표”, 2026.10.8.)

[표 42]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정부		NABO		비교 (B-A)	
	2027 예산안 (A)	증감률 (2026 재추계 ¹⁾ 대비)	2027 전망 (B)	증감률 (2026 전망 대비)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584.4	22.1	593.7	23.5	9.3	1.6
일반회계	564.3	23.9	573.1	25.5	8.9	1.6
내국세	529.3	24.7	538.7	26.5	9.4	1.8
1. 소득세	180.0	18.1	181.7	19.4	1.7	0.9
2. 법인세	216.7	58.9	222.1	60.6	5.4	2.5
3. 상속세 및 증여세	15.6	△15.4	15.6	△17.6	△0.0	△0.0
4. 부가가치세	91.4	2.6	93.3	5.7	1.9	2.1
5. 개별소비세 ²⁾	7.5	△16.9	7.7	△15.1	0.2	2.5
6. 증권거래세	10.7	△14.3	10.7	△12.2	0.1	0.6
7. 인지세	0.8	5.2	0.9	18.4	0.1	13.5
8. 과년도수입	6.6	14.5	6.7	11.2	0.1	1.4
교통·에너지·환경세	12.6	1.4	12.3	△1.6	△0.3	△2.4
관세 ²⁾	8.7	7.8	8.2	1.2	△0.5	△5.3
교육세	7.5	37.3	7.6	39.8	0.2	2.0
종합부동산세	6.2	23.4	6.4	25.5	0.1	2.1
특별회계	20.1	△13.8	20.5	△13.4	0.4	2.1
주세	3.0	△1.1	3.0	0.1	0.1	2.0
농어촌특별세	16.1	△20.9	16.4	△20.8	0.3	2.0
기타 ²⁾	1.1	-	1.1	-	0.0	4.3

주: 1) 2026년 9월 정부 재추계 대비

2) 2027년 예산안부터 개별소비세(담배분)의 55%와 관세(담배분)가 특별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이를 특별회계의 기타로 표시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련 세목 조정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Ⅲ. 2026~2030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1. 2026~2030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실질GDP는 2026~2030년 연평균 2.5% 성장하여 이전 5년(2021~2025년)의 1.9%¹⁾에 비해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GDP의 구성요소 중에는 AI 인프라 관련 설비투자 확대와 내수회복 및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 등이 이러한 성장세에 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GDP의 예상 성장경로는 한동안 추세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추세성장률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통관수출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등 관련 품목 수요의 증가로 전망기간 중 연평균 6.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입도 설비투자 등 내수확대와 수출용 중간재 수입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망기간 중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GDP 2026~2030년 중 성장률은 5.4%로 예상된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동기간 중 2%대에서 안정되겠으며, GDP디플레이터의 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상황 개선, 세계적인 수요감소 등을 반영하여 하향 안정되면서 내수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2.0%로 2027년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2026~2030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1~2025년 평균 3.3%보다 1.1%p 낮은 수준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과 공급망압력의 해소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주된 하방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추세보다 높은 GDP 성장경로는 각각 공급측, 수요측 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취업자 수는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11.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yi.choi@assembly.go.kr, 6788-3775)

김원혁 경제분석관(whkim@assembly.go.kr, 6788-4657)

이두영 경제분석관(douyounglee@assembly.go.kr, 6788-4671)

천경록 경제분석관(chunkr21@assembly.go.kr, 6788-4751)

백기홍 경제분석관(ghbaek@assembly.go.kr, 6788-4750)

1) 2021년말 대비 2025년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한다.

2026~2028년 중에는 연간 10만명대의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지겠으나, 2029년부터는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져 2029년 8.4만명, 2030년 5.4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단, 정부가 2027년 이후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가 확대할 경우 실제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2026~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4%로 전망된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대규모 특별급여 지급의 영향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안정되고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명목임금 상승률은 완만하게 둔화될 전망이다.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6~2030년 중 연평균 3.2%로 전망된다. 2026년 국고채금리는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상승, 글로벌 중장기 금리와의 동조화 등으로 연평균 3.6%로 예측된다. 2026년 7월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2027년 국고채금리는 하락 추세를 보이며 올해보다 0.1%p 하락한 3.5%로 전망된다. 2028년 이후 국고채금리는 경제성장률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정책목표 수준인 2%대에 수렴하는 등 하향 안정화되며 2030년 2.8%로 예측된다.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는 2026~2030년 중 연평균 3.8%로 전망된다. 회사채금리는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세 등에 따라 2026년에는 연평균 4.3%를 기록하고, 2027년에는 연평균 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후 회사채금리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향 안정화 등에 따라 2030년 3.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 중기 NABO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연평균 증감률 ¹⁾ (‘26~’30년)
실질GDP 성장률	3.5	2.7	2.5	2.5	2.4	2.5
명목GDP 성장률	22.0	7.3	5.0	4.8	4.6	5.4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17.8	4.4	2.5	2.3	2.2	2.8
통관수출 증가율	54.0	10.0	5.0	4.7	4.3	6.0
통관수입 증가율	22.0	9.0	6.0	5.0	4.4	6.1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4	2.2	2.0	2.0	2.2
취업자수 증가(만명)	13.4	18.0	10.1	8.4	5.4	11.1 ²⁾
명목임금 상승률	3.2	6.5	4.7	3.3	3.2	4.4
국고채금리(3년)	3.6	3.5	3.2	2.9	2.8	3.2 ²⁾
회사채금리(3년, AA-)	4.3	4.0	3.7	3.3	3.2	3.8 ²⁾

주: 1)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2) ‘26~’30년의 연평균 수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2.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가. 세목별 전망 방법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2026~2030년) 국세수입 세목별 전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부세목별로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세부세목별로 전망모형에 사용한 변수의 경우 명목 GDP와 그 구성요소인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 외에도 종합소득세는 취업자수와 사업소득 신고율 등과 같은 변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경우 금리, 환율 등 금융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추가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임금근로자 수, 명목임금 상승률, 실효세율 등을 활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고, 2027년 반도체 업종 성과급 지급 효과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또한, 회귀모형을 통해 산출한 전망치에 EITC·CTC 확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제도변화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법인세는 신고분과 원천분을 구분하여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하였다. 신고분 법인세는 먼저 신고분 과세표준을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분을 추정하였다. 신고분 과세표준은 명목GDP, 설비투자, 통관수출 및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원천분 법인세는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을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원천분을 추정하였다.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은 명목GDP, 설비투자 및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도별 법인세 전망치는 신고분과 원천분의 추정치를 합산한 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명목GDP, 통관수입 및 통관수출, 설비투자,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이용한 회귀모형 등을 통해 전망한 후,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축소 등의 세수효과를 반영하였다.

기타 세목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목별 전망모형을, 과년도수입은 명목GDP 성장률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다른 세목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전망치를 활용하여 전망하였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표 44] 세목별 중기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전망 방법 및 주요 가정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 민간소비, 취업자수, 사업소득 신고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양도소득세: 금리, 명목GDP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근로소득세: 임금근로자수, 명목임금 상승률, 실효세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후 2027년 반도체 업종 성과급 지급 효과 반영 등 ○ 이자·배당소득세: 금리, 명목GDP, 민간소비, 환율, 개인 채권 잔액, 개인 예금 잔액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분: 명목GDP, 설비투자, 통관수출 및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신고분 과세표준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분 법인세를 추정 ○ 원천분: 명목GDP, 설비투자, 환율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통해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천분 법인세를 추정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목GDP, 통관수입액, 통관수출액, 설비투자, 환율 등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기타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상속세는 연부연납분과 당해발생분을 구분하여 당해발생분은 사망자수, 주택매매가격 등을 반영한 모형을 통해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상속세의 경우, 2026년까지는 자산가 사망 등으로 인한 세수증가를 고려하여 전망 ○ 증여세: 1단계에서 금리, 정책변수 등을 반영한 증여건수를 1차로 전망한 후, 가계금융자산 증가율 추이 등을 반영하여 세수를 2단계로 전망 ○ 개별소비세: 품목별로 명목GDP, 민간소비 등을 반영한 모형(유류분, 자동차분 등)이나 최근의 출고량 추이(담배분)를 반영하여 전망 ○ 증권거래세: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별 거래대금을 명목GDP, 금리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후 시장별 세율 반영하여 전망 ○ 인지세: 명목GDP 성장률, 원화대출금 증가율 등을 이용한 회귀모형을 통해 전망 ○ 교통·에너지·환경세: 최근 자동차 보급 추세 및 경제여건 등을 반영한 휘발유·경유 수요량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에 유종별 세율을 적용하여 전망 ○ 관세: 향후 통관수입액 증가율 전망 및 최근의 실효세율 추이,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전망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과표별 현황에 향후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망

나.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2026~2030년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하여 동 기간 명목GDP의 성장률(연평균 5.4%)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에서 2027년 593.7조원으로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등 업종의 경기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법인세(전년 대비 83.8조원)가 국세수입의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상승, 내수회복에 따른 소득 및 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소득세(29.6조원), 부가가치세(5.0조원) 등 다른 주요 세목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8년 이후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2028년 4.8%에서 2029년 4.2%, 2030년 4.0%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명목GDP 성장률이 2028년 5.0%에서 2030년 4.6%로 둔화²⁾된 것에 기인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6년 152.1조원에서 2030년 203.0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중 소득세는 주요 세부세목인 근로소득세가 고용지표의 개선에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소득세는 전망기간 중 임금근로자 수(연평균 0.5%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률(연평균 4.4% 상승) 등 고용시장 지표 개선에 따라 연평균 10.2%의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소득세는 내수회복에 따라 민간소비 등이 개선되면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연평균 6.0%의 증가가 전망된다. 배당소득세는 법인실적 호조 및 반도체 기업 특수에 따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6~2027년 대 폭 상승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14.9%의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다주택자 증과 유예 종료에 따른 일시적 증가의 기저효과로 2027년 감소한 이후, 2028년부터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3.5%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2026년 138.3조원에서 2030년 253.4조원으로 연평균 16.3%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중 법인세 증가는 주로 신고분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천분은 신고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법인세 신고분은 2026년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2027년 세수가 전년

2) 국회예산정책처 명목GDP 성장률 전망(%): ('28년) 5.0, ('29년) 4.8, ('30년) 4.6

대비 7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경제성장세와 기업실적 증가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2028~2030년 신고분 세수는 연평균 4.7%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 원천분은 금리 하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와 배당금 확대 등에 힘입어 2027년 세수가 전년 대비 3.3%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경제성장세 완화와 함께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리 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원천분 세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2026년 88.2조원에서 2030년 107.0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망기간 중 민간소비(연평균 3.9% 증가) 및 통관수입(6.1%)의 증가 등 관련 경제지표 개선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 세목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기타 소비세수는 내수회복에 따른 과세대상 품목의 소비 증가와 함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환원 등으로 2026년 38.1조원에서 2030년 43.0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 자산세수의 경우 2026년 63.8조원에서 상속세 연부연납분 감소, 증권거래대금 하향 조정 등으로 2027년 56.7조원으로 감소한 후, 자산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2030년 66.9조원으로 전망기간 중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5] 2026~2030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

	2026	2027	2028	2029	2030	(단위: 조원, %) 연평균 증감률 ²⁾ (‘26~’30년)
NABO 국세	480.5	593.7	621.9	647.7	673.3	8.8
소득세	152.1	181.7	188.9	195.9	203.0	7.5
법인세	138.3	222.1	232.3	242.8	253.4	16.3
부가가치세	88.2	93.3	97.9	102.4	107.0	4.9
기타 ¹⁾	101.9	96.7	102.8	106.6	109.9	1.9
- 기타 소비세수	38.1	39.9	41.9	42.5	43.0	3.1
- 기타 자산세수	63.8	56.7	60.9	64.1	66.9	1.2

주: 1) 기타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의미하며, 기타 소비세수 및 기타 자산세수는 다음 세목의 합계

(기타 소비세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관세, 주세

(기타 자산세수)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2)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26~2030년 정부 전망과의 비교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국세수입은 2026년 478.6조원³⁾에서 2030년 644.8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보다 연도별로 1.9~28.5조원 차이가 있으며, 2026~2030년간 총 77.1조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양 기관의 전망 차이는 중기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6년 및 2027년의 세수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점과 중기 경제성장의 흐름에 대한 전망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2026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와 정부 재추계의 차이는 1.9조원 수준이며, 2027년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정부 전망을 9.3조원 상회한다. 이는 2027년 명목GDP 성장률 등 경제전망에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7.3%)가 정부(4.6%)보다 높게 전망하는 등에 주로 기인⁴⁾한다.

한편, 2028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전망을 2028년 15.2조원, 2029년 22.2조원, 2030년 28.5조원 상회하는 등 전망의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28~2030년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명목GDP 성장률 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전망을 연도별로 0.6~1.0%p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⁵⁾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박정환 추계세제분석관(jhpark83@assembly.go.kr, 6788-4835)

3) 이하 2026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2026년 세수재추계(2026.9.)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6.4.) 당시 국세수입을 415.4조원으로 전망하였다.

4) 2027년 전망의 차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II.3.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과의 비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5) 명목GDP 성장률(%): (NABO) '28년 5.0, '29년 4.8, '30년 4.6 vs. (정부) '28년 4.0, '29년 4.0, '30년 4.0

[표 46] 2026~2030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vs 정부

(단위: 조원, %)

		2026	2027	2028	2029	2030	'26~'30년 (증감률)/[합계]
NABO	국세수입	480.5 (28.5)	593.7 (23.5)	621.9 (4.8)	647.7 (4.2)	673.3 (4.0)	(8.8)
	명목GDP 성장률	22.0	7.3	5.0	4.8	4.6	(5.4)
정부	국세수입 ¹⁾	478.6 (28.0)	584.4 (22.1)	606.7 (3.8)	625.5 (3.1)	644.8 (3.1)	(7.7)
	명목GDP 성장률	12.3	4.6	4.0	4.0	4.0	(4.1)
NABO - 정부		1.9	9.3	15.2	22.2	28.5	[77.1]

주: 1) 정부의 2026년 전망치는 9월 재추계 기준

1. ()는 전년 대비 증가율 및 '26년 대비 '3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

2. []는 '26~'30년간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간 국세수입 전망차이의 총합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BOX 2] 2027년 이후 추가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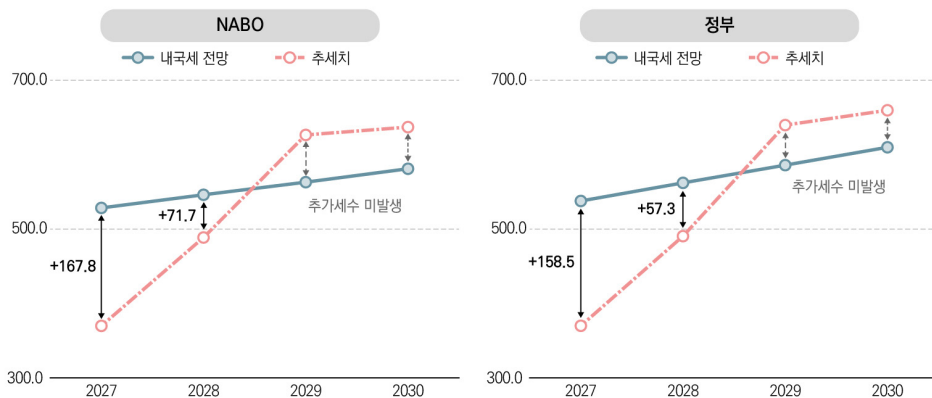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국세수입의 추세를 상회하는 수입분을 별도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국세수입이 장기적인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납되는 시기에 추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적립
 -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향후 세수 감소기에 재정을 보완하는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예정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추가세수’로 내국세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의미
 - 예산연도(t년도) 추가세수 = 내국세 세입예산 - 내국세 추세치
 - 내국세 세입예산: 내국세 8개 세목 예산에서 개별소비세 담배분 제외
 - 추세치: $(t-2\text{년 내국세 실적}) \times [1 + (t-12\text{년} \sim t-2\text{년간 내국세 연평균증가율})^2]$
 - 추가세수 외에도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보조재원으로 편입
 - 초과세수: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로 산정한 내국세 세입 전망의 예산 대비 초과분으로 추가세수와는 다른 개념임
 -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추가세수로 규정된 만큼, 기금의 지속가능성은 향후 내국세의 추세치 상회 여부 및 그 규모에 달려 있음
-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추가세수 158.5조원 등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162.3조원으로 편성
 -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158.5조원) 외에 특별회계 예수금(2.6조원) 및 전입금(1.2조원) 등으로 구성
 - 편성된 재원은 청년 등 미래대응기금 분야에 대한 자체 사업비로 45.4조원, 국채 신규발행 축소 등에 12.5조원 지출하고, 남은 여유재원인 104.4조원은 기금에 적립할 계획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바탕으로 추가세수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는 2027~2028년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정부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는 2027년 추가세수 규모 (158.5조원) 외에 2028년 이후 추가세수의 추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가세수 추이를 추정한 결과, 2028년 57.3조원 수준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및 정부 전망에 따른 추가세수 추이]

(단위: 조원)



- 주: 1. NABO의 추가세수 추이는 내국세 실적 및 전망을 바탕으로 산정
 2. 정부의 추가세수 추이는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바탕으로 NABO가 추정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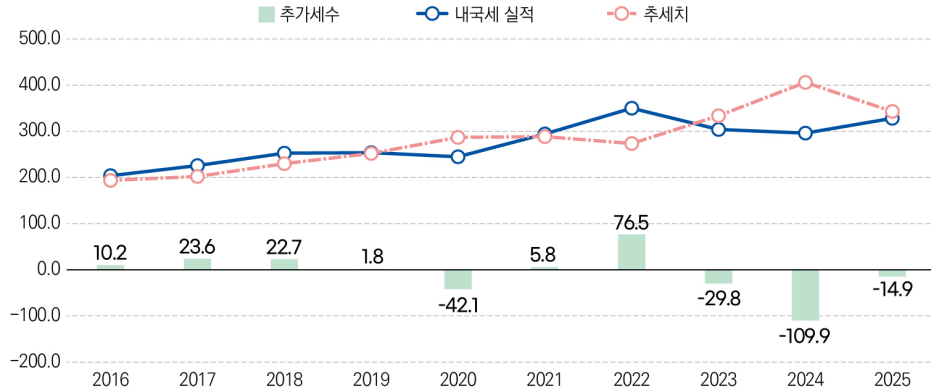
자료: 정부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 이러한 추가세수 추이는 추가세수 산정방식 구조에 주로 기인

-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의 세수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내국세의 증가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경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음
- 2015~2025년간 추가세수를 산정하여 추이를 살펴보면, 내국세 실적과 추세치 간에 2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며, 내국세 증가추세가 감소로 전환된 2020년, 2023년 등 시기에 내국세 실적이 추세치를 하회하는 모습

[최근 10년간 내국세 실적 및 추세치, 추가세수 추이]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서 추가세수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기금 자체 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까움
 -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로 인한 적립 없이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는 세수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세수가 감소하여 기금의 재정안정화 목적의 지출이 필요한 시기와 겹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하여 미래대응기금 자체 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할 필요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출의 비중이 높을 경우,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추가세수가 발생한 시점의 기금 여유재원을 통해 세수 감소기 등에 재정 안정화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감안하여 지출을 계획할 필요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더서울미디어(주)(tel 02·2274·3588)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788·4834)

ISSN 3058-5961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